

연구총서 2010-04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윤인진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발 행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편 집 인 연구지원센터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신한빌딩 5층

전 화 (대표) 02-591-3822

(직통) 02-3215-5785

(팩스) 02-3215-5789

홈페이지 www.dongposarang.or.kr

기획·디자인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인쇄처 (주)늘품플러스

ISBN 978-89-964614-4-9 98300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NKR-2010-B1)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북한이탈주민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 Summary	1
I. 서론	5
1.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선	6
2. 상호인식과 정체성 연구의 필요성	11
3. 강점 관점의 도입	12
II. 선행연구 검토	17
1. 구 동서독 출신 주민들 간의 상호인식	18
2.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상호인식	21
3.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25
4.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대해 갖는 사회적 거리감	27
5.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30
III. 연구방법	35
1.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	36
2.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조사	42
3.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44
4. 설문조사 측정 도구	47
5. 심층면접	49

IV.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주민과의 상호인식	51
1. 북한과 남한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태도	52
2.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인식	56
3. 생활조건과 대응방식	59
4. 남한사회 적응 수준	63
5. 상호인식	67
6. 남한생활 만족도	73
V.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거리감	79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80
2. 북한이탈주민의 이미지	81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83
4.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주의	87
VI. 심층면접 결과	91
1. 연구방법	92
2. 정체성 유형별 탈북, 적응, 정체성 분석	94
3. 요약 및 정리	115

목 차

VII. 결론 및 정책 제언	119
1. 요약 및 결론	120
2. 정책 제언	128
● 참고문헌	135
● Abstract	139

표·그림 목차

<표-1-1> 연구대상의 분류 방식	15
<표-2-1> 동서독인의 상호 이미지	20
<표-3-1>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 표본 추출방법	37
<표-3-2>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 표본 추출 내용	39
<표-3-3>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40
<표-3-4>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조사 응답자 특성	43
<표-3-5>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응답자 특성	45
<표-4-1> 북한과 남한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태도	53
<표-4-2> 북한이탈주민의 문화변용과 정체성 유형	56
<표-4-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인식과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57
<표-4-4>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사유에 대한 인식	58
<표-4-5> 생활조건에 대한 인식	59
<표-4-6> 현재 생활조건에 대한 대응 방식	60
<표-4-7> 생활조건과 대응방식 간의 관계	61
<표-4-8> 생활조건과 대응방식 간의 관계	62
<표-4-9> 남한사회 적응수준	63
<표-4-10> 사회적응 요인분석 결과표	65
<표-4-11> 남한사회 적응수준의 요인별 비교	66
<표-4-12> 적응 유형별 적응 수준	67
<표-4-1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주민 이미지에 대한 인식	68

표·그림 목차

<표-4-14>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이미지에 대한 인식	69
<표-4-15>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이미지에 대한 인식 비교	71
<표-4-16> 남한주민 이미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표	72
<표-4-17> 북한이탈주민 이미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표	72
<표-4-18> 요인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이미지에 대한 인식 비교	73
<표-4-19> 남한생활 만족도	74
<표-4-20> 정체성 유형별 남한생활 만족도	75
<표-4-21> 자기인식 유형별 남한생활 전체 만족도	76
<표-4-22> 탈북사유별 남한생활 전체 만족도	76
<표-4-23> 적응 유형별 남한생활 만족도	77
<표-5-1>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의 기여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	81
<표-5-2>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	82
<표-5-3> 남한주민의 다문화적 소수자집단에 대한 친밀감	83
<표-5-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85
<표-5-5> 남한주민의 소수자집단에 사회적 거리감	86
<표-5-6>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2010년)	87

<표-5-7>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	89
<표-6-1>	면접대상자 특성	93
[그림 3-1]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 표본추출방법의 단계별 내용	38
[그림 5-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85
[그림 5-2]	남한주민의 소수자집단에 사회적 거리감	86



Summary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생활 조건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는 한편, 그들의 삶의 자세나 태도를 기준으로 강점 관점 접근 및 약점 관점 접근의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과정을 통해 각 하위집단을 극복형, 좌절형, 발전형, 과소성취형의 네 가지 적응유형으로 나누고 그 분포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북한이탈주민 1,2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인식,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사회문화 적응 수준, 생활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하기 위해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을 비교하여 인식의 차이를 찾아내고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문화와 풍습, 지식과 경험, 북한 출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반면 남한의 문화와 풍습, 남한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남한의 사회문화에 동화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북한 문화정체성과 남한문화정체성의 강약을 중심으로 적응유형을 통합형, 동화형, 고립형, 주변화형으로 구분한 결과 동화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통합형, 주변화형, 고립형의 순으로 나타나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문화를 수용하고 남한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출신 남한사람으로 보는 응답자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남한사람, 북한사람, 동포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출신 남한사람, 북한사람, 남한사람, 동포의 순으로 생각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셋째, 탈북의 사유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탈북했다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개인적 문제 때

문에 탈북했다는 경우의 순이었다.

넷째, 사회적응 유형과 관련하여 생활조건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조합하여 극복형, 발전형, 좌절형, 과소성취형으로 구분한 결과 발전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극복형, 좌절형, 과소성취형의 순이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남한사회 적응수준을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한주민들과 어울리고, 남한사회의 법·제도에 적응하고, 남한문화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거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혹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인식과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남한주민을 자신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이 친절하고, 근면하고, 합리적이고,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면 자신들보다 진실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반면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이 근면하고 지적이다라는 이미지 외에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다.

여덟째,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여러 생활 영역별로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높았지만 가족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문화와 풍습, 남한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남한의 사회문화에 동화하고 남한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강하게 갖고 있다. 비록 경제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힘겹게 살다가 한국에 입국해

서 남한정부와 시민사회의 폭넓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들이 적응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거나 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보다는 이들의 낮은 계층 배경, 남한에서 호환되기 어려운 교육 및 직업 기술, 낮은 건강 수준, 남한주민의 편견과 차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같은 구조적이고 외재적인 조건들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립의지를 강화하거나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은 개인의 역량강화 노력뿐만 아니라 이들이 노동시장과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은 초기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자립역량 을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긍정적인 인식과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상호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시대적 환경과 남한주민의 인식 변화에 대응하는 정착지원정책의 새로운 논리와 지원방안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사회 소외계층과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개인 책임의 귀속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착지원정책이 수립 될 필요가 있다.



I. 서론

1.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선

시선 1. 2010년 11월 24일자 연합뉴스에 “‘北 포격’ 언쟁, 새터민이 70대 폭행해 입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사건 내용은 부산 사하구 지하철역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한 교회 전도사가 이야기하는 도중 한국에 입국한 지 1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 이모(47세)씨가 마이크를 빼앗아 자신의 의견을 말하다 자신을 간첩이라고 말한 70대의 박 모씨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게 매번 쌀을 퍼주고 너무 어리석다. 북한과 전쟁하면 반드시 남한이 이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변에서 이씨의 발언을 듣던 박씨가 “북한과 전쟁하면 모두 죽는다.”라며 이씨를 간첩이라고 몰아세우자 분을 품고 박씨 집 근처 까지 따라가서 폭행한 것이다.

시선 2. 2010년 4월 21일자 국민일보에는 “가슴 죄는 탈북자들… ‘너희 북한, 왜 아래?’ 동료 농담에도 움찔”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박유리·최승욱, 2010). 천안함이 침몰하고서 그 배후로 북한이 유력시되면서 모 건설업체 과장이 직원인 북한이탈주민 김모씨(47세)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희 북한, 왜 아래? 천안함에 탄 사람들이나 죽이고. 왜 남한에 피해를 주느냐고.”라고 한 말에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듯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같은 기사에는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 평양예술단에서 성악을 하는 김모씨(40세)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그녀는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산수유꽃축제에 초청 받아서 공연을 하다가 평소 호응과 달리 관객 몇 명만이 박수를 치는 것을 보고 무대에서 조용히 내려왔다. 천안함 침몰 이후 취소된 공연이 6건이고 3명의 단원이 예술단을 떠났다고 한다. 이 두 김씨를 포함한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신들에 대한 남한주민의 차별이 심해질까 우려하고 있다.

시선 3. 2010년 8월 10일 북한 관련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NK에는 “탈북자 밀집 지역은 집값이 떨어진다는…”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남궁민, 2010). 이 기사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1,000여 명 가까이 모여 살고 있다. 이 지역이 북한이탈주민 집단 거주지가 되면서 남한주민들과 작은 분쟁들이 생겨났다. 논현동에서 24년씩이나 살아 온 김모씨(65세)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밤에 고성방가를 한다면 불만을 털어냈다. 서울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몰려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면 입주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다. 이 기사에서 인터뷰를 한 권성철 방화6사회복지관과장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탈북자라는 신분을 감추고 조선족이라고 말하면 취업이 더 잘 될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선 4. 2010년 8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아동청소년미래포럼과 무지개청소년센터가 공동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탈북·다문화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청소년들이 만드는 공존과 통합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탈북·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사회통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무지개청소년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이주배경(북한이탈·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만드는 공존과 통합의 다문화 한국」 실현을 모토로 하고 있다. 이 모토에서 알 수 있듯이 무지개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은 탈북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이주민이라는 공통의 배경을 갖고 있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통일부 관계자들과 다수의 민간 통일운동가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의 시각에서 보는 것을 반대하고 이들이 한민족이고 통일을 준비하는 역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에 대해 남한사

회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시선 5. 통계청의 ‘2010 한국의 사회동향’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태도에 관한 보고서가 게재되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병로 박사는 남한주민의 대다수는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 경쟁이 심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노동시장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되고 남한주민과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7.8%에 달하고 똑같이 경쟁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2.2%라고 보고했다. 김 박사는 이런 조사결과를 남한주민은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경쟁자로 보지는 않지만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해 직장동료가 되었을 때에는 동일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조현숙, 2010).

앞서 소개한 다섯 개의 사례들이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남한주민의 시각을 모두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은 남한주민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나 쉽사리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고정관념의 속내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사례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일탈 또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씨의 발언을 살펴보면 북한을 찬양하거나 남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을 들은 박씨가 그를 간첩이라고 부른 것이다. 단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은 ‘잠재적 간첩’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북한이 싫어서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왔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온 사람, 따라서 북한과 여전히 연계되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 사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피로감, 부담감, 그리고 거부감을 보여준다. 이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의 마음속에 무언가 사회에 기여한다기보다 짐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네 번째 사례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보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이탈주민은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주 배경을 가진 남한사회의 소수자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원론적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온정적 태도를 갖다가도 이해관계가 달린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냉정해지는 남한주민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북한이탈주민은 보상과 시혜의 대상이라기보다 다른 사회 소외계층과의 형평성을 지켜야 되는 일반 취약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는 남한사회 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과거에 비교해서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남북한이 대립했던 1970~80년대의 냉전체제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정치적 가치가 있었고 입국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남한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살기 힘들어 탈북한 경제 난민으로, 그리고 입국 후에는 남한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든 것에는 남한사회 자체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남한사회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남한사회는 신자유주의 사고와 정책이 만연해지면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29.2%에 불과했는데 2009년에는 42.7%로 치솟았고(통계청, 2011),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000년의 28%에서 2007년의 32.3%로 증가했다(여정민, 2008). 남한주민 조차 살기 힘들어져서 남을 돌아볼 처지가 된 것이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소수자집단에 대해 인색하게 만들었다. 남북관계의 변화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남한주민의 시선을 의심과 냉기가 서린 것으로 변화시켰다.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경협과 교류가 활발했을 때는 북한이탈주민 자신들도 ‘통일의 역군’으로 자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남한주민이 느끼는 안보불안과 피해의식이 애꿎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렇게 남한사회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자립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남한주민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정책의 논리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통일의 역군’이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기 힘들게 되었다. 다른 사회 취약 계층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정책의 명분과 효율성을 함께 추구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대화이고 상호이해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자기 자신과 남한주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는 상대에게 얼마나 자신의 마음 문을 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상호간의 인식의 차이와 장벽을 깨닫고 그것을 줄이고 허물 수 있는 편견감소와 상호이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공존과 통합의 여지를 늘려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주민과의 상호인식을 연구하고자 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상호인식과 정체성 연구의 필요성

많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태도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좌절감, 소외감, 이등국민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2009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을 ‘동포’로 생각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을 자신을 ‘북한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미녀, 2009). 그리고 남한주민은 북한정권이 싫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단지 자신들이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편견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의 상호이해의 부족은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으로 이어지고 두 집단 간에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남한주민과의 일차적 관계의 형성의 실패는 사회연결망을 취약하게 만들어서 기회구조로부터 배제되게 만든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의 조건으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의 긍정적인 상호이해 인식과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의 기본 요건 중의 하나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자기인식과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은 사회 세계에서 개인의 위치를 의미하며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정체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외부의 자극을 해석하고 해석된 의미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자신의 시력에 맞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초기 적응 단계에서 실패한 원인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자기인식이라고 한다. 반면 성공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남한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역할과 사명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다(윤인진, 1999).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면 재사회화 교육과정을 통해 현실적이고 건설적

인 자기인식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주민과의 상호인식에 대해서 경험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기초해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대표성 있는 북한이탈주민 표본과 남한주민 표본을 선정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해서 자료를 수집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정착은 정태적인 현상이 아니라 동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입국 후 거주 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인식과 태도, 그리고 사회문화 적응 수준을 패널 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친 패널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 적응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며, 이런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장기패널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주요 연구 결과는 2010년에 실시된 1차 패널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에 기초했다.

남한주민과 관련해서는 2010년에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고, 이러한 남한주민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고자 했다.

3. 강점 관점의 도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탈북 과정과 제3국에 체류하는 재외탈북자 실태와 인권문제, 입국 후 국내에서의 적응과

정과 문제 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의 대다수는 적응론을 주된 이론적 관점으로 삼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다양한 차원의 적응수준을 측정하고, 부적응의 요인들을 규명하고, 적응능력을 제고하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적응론적 관점은 문제의 원인을 북한이탈주민에게서 찾는 경향이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합한 또는 경쟁력 있는 인성, 자립·자활의지, 학력 및 직업기술, 사회연결망과 같은 사회자본, 체력 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어 온 방안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착기본금을 감액해서 취업의지를 제고하거나,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능력을 제고하거나, 고용장려금 또는 취업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직업 친화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방식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식의 가치관, 사고방식, 직업기술을 획득하게 되면 적응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사회부적응의 원인을 북한이탈주민 개인에게서 찾는 것은 일종의 ‘희생자 나무라기’(blaming the victim)이다. 이런 개인주의적 접근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재구조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이 심화된 것과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갖는 편견과 차별행위와 같은 구조적이고 외재적인 요인들을 간과하기 쉽다. 대신 북한이탈주민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든지, 눈높이가 비현실적으로 높다든지, 정부의 관대한 정착지원이 자립의지를 약화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그 원인을 개인의 결함에서 찾는 선행연구는 ‘약점 관점’(weakness perspective)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은 북한이탈주민을 무기력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낙인찍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계속 취하게 되면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 자아의식을 고취하지 못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잠재력을 찾아내서 활용하지 못하고, 정부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불

기’식의 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내 경기가 악화되면서 일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복지정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 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강점 관점’ (strength perspective)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강점 관점은 부적응이 아닌 성공적인 적응에 초점을 두고 성공의 요인들을 찾아내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 가족복지학 분야에서 가족탄력성 또는 가족회복력(family resilience) 개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이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점 관점의 한 예이다(김미옥, 2001: 10; 2008: 100; 신성희, 2010: 128; 현은민, 2007: 2). 강점 관점의 시각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연구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성공의 요인들을 규명하여, 일반인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약점 관점을 바탕으로 수행된 다수의 선행연구과 차별화된다. 개별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 모두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약점 관점뿐만 아니라 강점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 대응방식이 객관적 삶의 조건과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적응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삶의 조건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는 한편, 그들의 삶의 자세나 태도를 기준으로 강점 관점 접근 및 약점 관점 접근의 대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 과정을 통해 각 하위집단을 아래 <표 1-1>과 같이 극복형, 좌절형, 발전형, 과소성취형의 네 가지 적응유형으로 나누

고, 각 유형이 다양한 삶의 경험, 교육적 개입, 사회적 지원 등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유형 간의 이동을 이루어내는가를 장기간에 걸쳐 추적·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각 유형의 비율을 살피고 사회문화 적응 수준이 각 유형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가를 조사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 표-1-1_ 연구대상의 분류 방식

기준	삶의 조건(가족해체, 빈곤, 학력 등)	
	고위험군	저위험군
삶의 자세 및 태도	강점 관점	극복형
	약점 관점	좌절형

I

II

III

IV

V

VI

VII



Ⅱ. 선행연구 검토

1. 구 동서독 출신 주민들 간의 상호인식

독일은 한국의 통일과 통일 후의 사회통합의 선례로서 그동안 많이 연구되었다. 독일 통일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통일이 구동독을 전부 서독식으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통일 후 오랜 기간이 지났어도 동서독 출신 주민들 간에 마음의 장벽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서독출신 주민들로서는 자신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그리변하지 않았지만 동독출신 주민들은 서독의 체제와 제도, 가치와 행위양식을 배워야 했다. 이러한 것은 서독 정부가 통일의 주체로서 동독 정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즉 서독은 동독출신 주민들의 잠재력을 활용하기보다 오히려 이 잠재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구동독의 것은 모두 나쁘다, 서독의 것은 좋다”라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동독출신 주민들간에는 과거에 대한 향수, 서독에 대한 반발이 형성되었다(유팔무, 1999). 그리고 이러한 것은 통일이후 동독출신 주민들로 하여금, ‘2등국민’이라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다(전태국, 1998; 유팔무, 1999). 또한, 동독출신 주민들은 ‘동독정체성’ 또는 ‘오스탈지’(Ostalgie: Ost+Nostalgie) 등의 동독출신들의 감정은 통일 후 변혁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발생한 저항적 지역정체성이다(전태국, 2000).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 출신 주민들 간의 상호인식은 ‘심리적 장벽론’ 또는 ‘동독주민의 2등 시민론’ 등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김누리 (2006)는 『머릿 속의 장벽: 통일 이후 동·서독 사회문화 갈등』을 통해 현재까지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들 양측 주민 간에 프레임의 차이가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서로 달리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프로브스트(Probst, 2003)의 지적대로 1996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독사람의 16%만이 자신들을 통일독일의 국민으로 여길 뿐, 나머지 82%는 여전히 스스로 동독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동독사람의 80%가

독일에서 자신들이 2등시민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표 2-1>은 알렌스바흐 여론조사연구소에서 통일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인 1991년 7월(설문조사 번호 5053), 2년여가 지난 1993년 1월(설문조사 번호 5075), 4년여가 지난 1994년 4월과 5월(설문조사 번호 5094)에 동서독 출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인상)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양측 주민들에게 ‘자의식적이다’, ‘깔끔하다’와 같은 15개의 형용사를 동일하게 제시하여 상대방 지역 주민들에 대해 얼마나 해당되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빈도를 확인한 조사이다.

<표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양측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다르게 가지고 있는 점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간씩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서로 상이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면, ‘자의식적이다’, ‘깔끔하다’, ‘단정하다’, ‘근면하다’, ‘지적이다’, ‘유쾌하다’, ‘돈에 인색하다’, ‘관료적이다’는 점에 대해 동독인이 서독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서독인이 동독인에 비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비해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반면에 동독인이 서독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서독인이 동독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에 비해 비교적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자비심이 많다’, ‘진실하다’, ‘불신적이다’, ‘불만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서독인이 동독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동독인이 서독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서로 뒤섞인 양가적(ambivalent)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독인은 ‘돈에 인색하다’는 등의 내용에서 서독인에 대해 ‘그렇다’는 반응이 서독인이 동독인에 대해 ‘그렇다’는 반응보다 적고, ‘자비심이 많다’는 등의 내용에서 동독인은 서독인에 대해 ‘그렇다’는 반응을 서독인이 동독인에 대해 반응한 것보다 적게 했다.

■ 표-2-1_ 동서독인의 상호 이미지

이미지	서독인에 대한 동독인의 이미지(%)			동독인에 대한 서독인의 이미지(%)		
	1991년 7월	1993년 1월	1994년 4/5월	1991년 7월	1993년 1월	1994년 4/5월
자의식적임	13	15	15	78	72	68
깔끔함, 단정함	31	24	26	61	49	47
친절함	47	38	38	55	42	37
근면함	23	22	28	53	41	36
지적임	22	20	18	45	34	32
개방적임	26	22	24	48	30	28
유쾌함	15	10	12	32	24	22
자비심이 많음	40	35	34	30	18	19
진실함	26	20	19	14	11	10
돈에 인색함	38	37	30	81	81	82
관료적임	19	14	10	62	64	67
불신적임	50	54	45	26	31	37
안락함	32	32	26	23	28	27
피상적임	15	16	17	23	26	32
불만족함	31	42	37	17	24	30

출처 : 알렌스바흐 여론조사연구소, 설문조사 5053, 5075, 5094(베르너 바이덴펠트, 칼-루돌프 코르테 (1996)의 '독일통일백서'에서 재인용)

양측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느낀 특징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서독인은 동독인에 대해 깔끔하고 단정하며, 근면하고 지적이라고 보는 반면, 진실함이 부족하고 피상적이라고 평가한 측면이 강했다. 반면에 동독인은 서독인에 대해 자비심이 많고 진실하지만 불만족하고, 불신적이라고 평가한 측면이 강했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에 대한 이미지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깔끔하다/단정하다', '친절하다', '근면하다', '개방적이다', '불신적이다', '피상적이다'와 같은 이미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간씩 변화하였다. 특히, 동독인이 서독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 중 뚜렷하게 증가한 것은 별로 없었던 반면에, 뚜렷하게 감소한 것은 '친절하다', '돈에 인색하

다’ 등이었다. 한편 서독인이 동독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 중 뚜렷하게 증가한 것은 ‘불신적이다’, ‘불만족하다’였고, 뚜렷하게 감소한 것은 ‘낄끔하다/단정하다’, ‘친절하다’, ‘지적이다’, ‘개방적이다’, ‘유쾌하다’, ‘자비심이 많다’, ‘피상적이다’ 등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큰 특징으로는, 동독인이 서독인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의 변화에 비해 서독인이 동독인에 대해 좀 더 실망스러워하는 방향으로 이미지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체성과 상대방에 대한 인상의 프레임 문제는 장차 통일 한국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에도 발생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의 방식과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신과 남한주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방식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런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공존과 통합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상호인식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에 대해 남한주민들이 어폐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고정관념, 편견, 이미지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 졌다.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시각을 살펴보면, ‘빨갱이’ 또는 ‘거지떼’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귀옥, 2000). 그리고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심진섭, 1995; 이수정, 1999; 전우영, 1999; 김혜숙, 2000; 전우영·조은경, 2000). 통일 연구원(2002)의 연구에서도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일정한

I

II

III

IV

V

VI

VII

사회적 거리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장호(1992)가 제기한 6.25와 적색공포증, 오수성(1993)과 조혜정(1996)이 제기한 바대로 남한과 북한의 장기간 분단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정란(2009)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으로부터 농담이지만, ‘원정화 간첩사건’ 이후 “너 간첩이지”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이미지나 고정관념이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연장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이재창·김영만(2005)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귀인양식, 고정관념 등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 특성을 남한주민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소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① 가치관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에 비해 ‘개인이나 가족’보다는 ‘나라’를, ‘출세’보다는 ‘부모봉양’을, 인생을 잘 사는 것은 ‘풍부하게 사는 것’보다 ‘깨끗이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② 라이프스타일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전통적 가족주의’, ‘전통적 집단주의’, ‘사회의식’, ‘전통위계 의식’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③ 귀인양식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에 비해 내외귀적인 항목에서 내적귀인이, 일관성 항목에서는 일시성보다는 항상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귀인 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④ 고정관념에서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반항적, 비판적, 이기적, 경쟁적으로 지각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평가한 특성보다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소외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은 소외영역에서는 일로부터의 소외감이 가장 높았으며, 소외유형에서는 무력감이 가장 높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내외귀인’, ‘문화개방성’, ‘풍요로운 생활’ 등 의 순이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2006년에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겪

는 사회문화적 갈등의 요소와 갈등의 처리 과정을 북한이탈주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을 비교하는 하나의 축은 가난, 공포, 통제로 상징되는 북한과 풍요, 자유로 상징되는 남한이다. 여기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가 명백하다. 비교의 또 하나의 축은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 사회로서의 남한과 국가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해주고 따뜻한 정이 있는 사회로서의 북한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왔으니까 여기의 문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이에 대하여 복잡한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한국여성개발원, 2006: 139).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의 편견과 부당한 대우 때문에 직장 내에서 구조적, 문화적, 일상적 차별에 직면한다고 보면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대해서 갖는 잘못된 편견이 오해와 갈등을 낳는다는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런 두 집단의 대립적 시각이 북한이탈주민의 양가감정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6: 155).

이와 관련하여 이희영(2010)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특유의 성향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주민 자신이 갖는 정체성으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에 인식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일상적인 인정투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친북이냐, 반북이냐라는 정치적 양자택일의 논리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법적인 소속을 넘어 혼신, 동화, 우월, 비판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인정투쟁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곧 남한사회의 일반화된 타자에 의해 이념적 적대국가 출신이자 식량난민 등으로 평가절하되는 현실과 상호작용

하며 자기존중과 사회적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이라고 주장이다. 이런 해석에 기초하여 이희영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한주민들과의 원활한 쌍방향적 소통이 어려워질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오인혜(2007)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고향의식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 대한 장소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들이 매우 양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태어난 곳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추억이 있는 장소라는 그리움과 호감이 있는 동시에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부정적이며 극단적인 경험에서 오는 회피,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야기했다고 간주되는 북한의 정권과 고향으로서의 애착이 담긴 북한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이중성이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반된 상호인식에 대한 원인과 더불어 해결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장실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김지운·장동진(2007)은 북한이탈주민이 여전히 스스로를 북한출신자 혹은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할 뿐,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진정한 의미의 새 터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사람이 바라보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보는 남한사람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그들은 남한사회 속에 존재하지만, 그와는 유리된 형태의 집단을 형성하며 삶을 영위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된다. 즉 상호인식의 차이가 정체성의 불안정성을 가져온다는 것인데, 주혜연은 바로 이와 같은 ‘정체성의 불안정성’을 종족화된 시민자격과 결부시켜 고찰하고 있다. 비록 주혜연은 성(gender)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과정의 어려움’을 논함으로써 논의의 영역을 좁히긴 하였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순히 성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주혜연도 김지윤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한국사회의 경직성을 들고 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독특한 성향 탓도 있지만, 그러한 성향이 유독 남한사회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주혜연은 이와 같은 현상이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사람과는 다른 별도의 종족으로 치부함으로써 우리와는 다른 사회구성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상정하게 되며, 더 나아가 ‘종족을 기준으로 분화된 시민자격’(ethnicized citizenship)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조영아(2009)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 실태와 요구도를 파악하고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본 바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169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진행하였고, 그 중 15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한 번 이상 만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전체의 28%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였다. 현재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문제는 ‘가족에 대한 염려’였고, 가장 상담 받고 싶어 하는 문제는 ‘진로와 직업선택’이었다. 조영아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공적인 형식의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 수 있고,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확고한 정체성

을 가지며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 또한 아울러 발견할 수 있었다.

조영아의 연구 이외에도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정체성의 함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민자의 사회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규 이민자는 새로운 문화권에서 자기(self) 개념의 많은 부문에 대해 영향을 받아서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정체성에 대해 중요한 재정의와 재구성을 해야만 한다(Horenczyk, 1996; Roccas et al., 2000). 하지만, 이민자는 주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자신들의 집단 정체성, 즉 원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회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할 수도 있다(Verkuyten et al., 1999). 이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회정체성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전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다고 해도 ‘뿌리 없음’(rootlessness)이나 문화적 상실(cultural loss)에 이르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Smith et al., 1998).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인 (사)새조위(새롭게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는 2009년 5~6월에 남한주민 500명과 북한이탈주민 255명을 대상으로 상호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북한이주민의 정체성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 응답자의 41%는 북한이탈주민을 ‘동포’로 생각한 반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한 응답자의 비율은 14.6%에 불과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응답자 중 58.4%가 자신들을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한 반면 ‘동포’라고 생각한 응답자의 비율은 27.8%였고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한 응답자의 비율은 6.3%에 불과했다(신미녀, 2009: 52). 이런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남한생활에서 심리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미시적 연구로서, 유은정·박명숙·김찬종(2010)은 탈북 대학생의 학습자 정체성을 생애사방법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탈북과 남한 입국이라는 사선을 넘는 결정적

사건을 전후로 이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팀색하였다. 분석 결과 탈북 대학생의 학습자 정체성은 미래 지향형, 현재 만족형, 과거 성찰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별 사회적응의 자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지향형인 탈북 대학생의 경우 암울한 과거를 지우고 희망적인 미래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여준다. 둘째, 현재 만족형인 탈북 대학생의 경우 과거와 현재를 완전히 분리시키면서 남한 생활에 빠른 적응을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과거 성찰형인 탈북 대학생의 경우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과거 북한에서 인권 침해의 삶을 반추하며 미래에 자신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전개서, 282-284).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들은 첫째, 유형과 상관없이 가족이 다른 요인들보다 지속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큰 희망을 꿈꾸며 밝은 내일을 향해 오늘의 힘겨움을 이겨내고 있는 경향이 있다, 셋째, 북한에서의 노동당 주도의 집단에 대한 혼신과 봉사 교육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의 자율성 인정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과 개인의 공동체를 위한 자율적 노력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전개서, 286-287).

4.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대해 갖는 사회적 거리감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이외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대해 갖는 사회적 거리감’이다. 사회적 거리감은 한 개인이 어느 집단의 성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차이와 유사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한 집단의 사회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하여 정태연과 김영만(2004)은 남한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이 탈북자 자신 및 남한에 대한 그들의 지각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남한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이 전혀 없는 북한이탈주민(혹은 무경험자) 66명과 평균 2.7년의 생활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혹은 유경험자) 9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들은 남한사회에 대한 현실인식 및 정치적 통제감을 평가하였으며, 가치관, 성격특성, 성적 일탈행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 차원에서 남한사람과 자기 자신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남한사회 유경험자는 무경험자에 비해 현실인식차원에서 남한사회를 더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남한사회의 정치적 통제감도 더 낮게 평가했다고 한다. 또한, 유경험자는 무경험자에 비해 남한사람 및 자신의 가치관과 성격특성을 더 부정적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성적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도 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사람들이 남한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큰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추정해볼 수 있다.

그 후 1년 뒤인 2005년에 실시된 「새터민 종합실태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거리감을 갖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낯선 외국에서 북한사람과 남한사람을 만났을 때 누가 더 반갑겠습니까?’라는 가상적인 질문을 하였다(윤여상 외, 2005).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비록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더라도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북한사람에게 보다 친근한 감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9.9%는 북한사람이 더 반기울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13.1%만이 남한사람이 반기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똑같은 감정을 가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0.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북한사람과 남한사람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른 연령층에 비교해서 30~50대의 연령층에서 남한사람보다 북한사람에 대해 친근감을 갖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사람과 남한사람에 대한 친근감의 정도는

성별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여자가 남자에 비교해서 북한사람에 대해 친근하게 느끼는 정도가 약간 강하지만 그 차이는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게 갖는 친밀도의 수준은 인사하는 정도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효 응답자의 반 수 가량이 남한주민과 그저 인사하는 정도의 친밀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남한주민을 매우 믿고 가족처럼 지낸다고 응답한 사람은 17.2%에 불과하다. 말벗 친구와 도움을 받는 정도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18.5%에 이른다. 연령별로 친밀도 수준에는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성별로도 친밀도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다.

2005년 새티민 종합실태조사가 있은 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08 이주민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주민의 문화와 여가생활 정도를 조사하였다(조현성·박영정·홍기원, 2008). 이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고용, 교육과 같은 생활 전반에서의 차별정도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조금 심하다’가 53.9%로 가장 많았고, ‘심하다’(29.4%), ‘별로 없다’(11.8%), ‘매우 심하다’(2.9%), ‘전혀 없다’(2%)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신들에 대한 남한주민의 시각에 대한 응답은 ‘남한 사람과 똑같이 해야 한다’가 53.9%로 가장 많았고, ‘약간의 차별은 어쩔 수 없다’가 25.5%, ‘한민족이므로 더 배려해야 한다’가 20.6%로 나타났다. 북한의 문화수준에 대해서 ‘높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16.8%, ‘낮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62.4%, 그리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20.8%로 나타나서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2.27점으로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에 대해 존중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불만’(35.1%)이 ‘만족’(33%)보다 약간 많았다.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을 느끼는 때는 ‘북한이탈주민 친구를 만났을 때’(27.5%), ‘차별받을 때’(24.5%), ‘대중매체에서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소식을 접했을 때’(19.6%),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문화를 남한사람에게 소개할 때’(18.6%),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의 문화

예술 접했을 때'(4.9%), '남북한이 스포츠 시합이 있을 때'(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북한사회와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자신들이 북한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한 사람과 똑같이 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생겨나고 이런 감정이 자신들의 북한이탈주민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경험한다. 자신들을 '새터민'으로 부르지 말고 '탈북자'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어찌 보면 어차피 남한사람과 똑같이 될 수 없을 바에는 북한출신의 정체성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거리감도 문제이지만,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역시 우리가 살펴볼 주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2000년 4월 여론조사기관인 이트랜드연구소(2000)에서 만 13세 이상의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접촉경험을 갖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응답자 중 36명(7.2%)만이 만나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정서는 대부분 직접적인 접촉경험보다는 언론을 통한 간접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49%는 ‘동포애를 느낀다’고 대답한 반면 12.8%는 ‘이방인같이 느껴진다’ 3.4%는 ‘적대감이 느껴진다’라고 대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호적인 정서를 갖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게 나타났다. 그러나 34.2%는 ‘별 감정없다’고 대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를 비교하면 10~20대가 가장 관심이 없고 40대와 50대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을 동포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학력별로 비교하면 학교를 졸업한 기성층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동포애를 느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중·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은 별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본 경험 유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동포애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경험이 반드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응답자가 46.2%인 반면 선별해서 일부만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2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3국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7.6%였고 가급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6.2%에 그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동포로서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의 논의로서 2000년에 실시한 김혜숙의 연구에 따르면, 남한 사람들이 북한사람에 대하여 갖는 인식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고 하였다. 남한의 대학생들은 북한사람에 대한 느낌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대학생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북한사람보다는 미국사람에게 더욱 호감을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들 중 여성의 경우 남성들보다 북한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다. 다시 말해서 남한사람들 내에서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북한사람에 대하여 갖는 호감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 후 2002년에 실시한 김혜숙은 남녀 대학생 552명을 대상으로 하여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북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감소하였으나 감정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의사에 있어서는 별로 변화된 것이 없었다고 한다.

양계민과 정진경(2005)에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태도,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

는데, 당시 조사대상자는 392명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해보지 않은 무경험자 222명과 접촉경험자 170명이었다.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과 접촉경험이 없는 다양한 집단들의 태도를 비교해 본 결과, 무경험집단은 부정적인 정서와 함께 연민의 정서가 매우 높았고 신뢰와 수용은 중간 정도에 위치한 반면,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 중에는 보호담당형사와 대안학교 교사집단이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전자는 무경험자들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지와 정서를 가지고 있고, 신뢰와 수용의 정도도 가장 낮았으나, 대안학교 교수들은 북한이탈주민이 긍정적인 점도 있는 한편 거칠고 의존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정서와 높은 신뢰와 수용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접촉을 직접하고 그들에 대해 잘 안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신의학자인 전우택과 그의 동료들이 1999년 10월에 북한이탈주민 보호경찰관 1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개인적인 인간관계속에서 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갖는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전우택, 윤덕룡, 민성길, 2000). 보호경찰관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면서 가졌던 애로사항 중 북한이탈주민의 태도와 행동양식과 관련된 것들은 사회주의적 사고방식, 불안과 불신, 돌출행동, 자립 의지의 부족, 이기주의,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자신을 영웅시하는 태도 등이다. 전우택(1999)은 다른 연구에서 ‘양가감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심리적 혼란과 갈등을 표현하였다. 즉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북한사회에서 형성된 북한주민의 인성이 국내 입국 후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의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감정, 생각, 인식, 충동이 마음속에 공존하는 심리적 갈등상태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지 보통사람인지, 남한정부와 사회에 의존할 것인지 독립할 것인지, 두고 온 가족들을 잊어버릴 것인지 기억할 것인

지, 자신이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심리적 갈등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선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사무국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타인에 대한 경계 심이 강하다. 둘째, 사선을 넘는 극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살아야 한다는 강한 삶의 의지’와 또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강한 죄책감’이 상호 갈등한다. 셋째, 개인차가 있지만 성격이 도전적이거나 반대로 무기력함을 보인다. 넷째, 외부의 형식적 내지 대가성 접근을 경험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의심 내지 배신감, 회의감의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다섯째,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여섯째, 외부환경에서부터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감에 사로 잡혀 있다. 일곱째, 민주시민으로써 지켜야 할 예법을 모른다. 이는 자유에 대한 개념과 법질서에 대한 개념부족으로 남을 생각하지 않거나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또는 함부로 하는 것이 자유라는 굴절된 사고를 갖고 있다. 여덟째, 가정생활 및 일상생활의 방법을 모른다. 이는 특히 결혼한 북한이주민의 생활에서 잘 나타나는 현상으로 남성은 가부장적·봉건적 사고에 젖어 있어 여성 위에 군림하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의 다른 면을 보고 느끼는 부인과의 가정생활에서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나아가 북한사회와 한국社会의 가정생활 및 일상생활의 매너차이 내지 문화차이로 빚어지는 갈등에 대한 개선노력보다는 오히려 자존심으로 일관하여 이웃과의 교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위의 특성들은 일부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나 일반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접촉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특성들은 오랜 기간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작스레 남한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게 되면서 사고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다.

I

II

III

IV

V

VI

VII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갖는 태도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전이되는 양상을 띤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이들에게 투영되어 이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바라보지 개성과 개별성을 갖춘 개인으로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사)새조위가 2009년에 남한주민 500명과 북한이탈주민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편견을 갖는 주된 이유는 ‘북한정권에 대한 혐오감’이고, 그 다음으로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아서’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자신들이 편견을 받는 주된 이유로 ‘못사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를 들었고, 그 다음으로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와 ‘북한정권이 싫기 때문에’를 들었다(신미녀, 2009: 52–53). 김광억(1999)에 따르면 남한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자신들과 동등하고 동질적으로 보지도 않고 동정심과 호기심, 그리고 의심과 불신의 뒤통수인 감정으로 대한다고 한다. 또한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태도와 행동 간의 이중성을 보여서 관념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자신에게 어떠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나 비용이 부담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앞에서 소개한 선행연구(김영자, 1999; 이트렌트연구소, 2000; 전우택·윤덕룡·민성길, 2000; 윤여상 외, 2005; 조현성·박영정·홍기원, 2008; 신미녀, 2009)의 결과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표본의 대표성과 조사방법의 염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보다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확률 표본을 대상으로 과학적 척도를 사용해서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북한이탈주민 표본과 남한주민 표본을 대상으로 이미 신뢰성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회심리학적 척도를 사용해서 두 집단 간의 상호인식을 조사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를 이용한 양적 연구방법과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공히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탐구로서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Kerlinger, 1986). 양적 연구방법은 추상적인 개념을 변수로 변환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일반화된 이론을 생성하는데 장점이 있지만 관찰 대상을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특성을 왜곡하거나 단순화하는 문제가 있다(성태제, 1998). 반면 질적 연구방법은 사례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특정한 역사적 조건들의 결과물로서 바라보고 조사대상자의 생각과 감정 등을 자신의 언어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은 사례로부터 도출한 결론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혼합·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Tashakkori and Teddlie, 1998).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연구는 물질적인 생활여건과 정신적인 가치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1.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

양적 연구방법의 주요 자료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이하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로 표기)부터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대 1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해서 2010년 7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44일간 수행되었다. 조사의 주된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실태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현재

주거실태, 경제 및 건강상태, 사회생활, 적응의식, 범죄 피해, 인구통계학적 특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수준과 적응 의식, 그리고 자신과 남한주민에 대한 상호인식, 생활만족도 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설문조사 대상 모집단은 2010년 6월 기준(2000년 이후 입국한 제주도를 제외)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북한이탈주민 이었고, 이들에 대해 1,200명을 표본으로 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2000년 이후 입국한 지역별, 성별, 연령(만20세 이상 65세 이하)을 고려한 다단계 층화무작위표본추출(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이었다. 이 방식은 다음 <표 2-1>과 같다. 신뢰수준은 95% 신뢰수준 $\pm 2.70\%$ 이다. 그리고 응답률은 2,050명(미수신+결번) 중 1,200명의 응답으로 55.8% 이었다.

■ 표-3-1_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 표본 추출방법

[제1단계] 2010년 6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인구 통계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층화

- 200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통계(통일부)를 모집단으로 이용하여 추출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3개 변수를 기준으로 층화
 - 지역별: 15개 광역시도로 층화
 - 성별: 남·녀 2개 층으로 층화
 - 연령별: 20대(만20세~29세), 30대, 40대, 50대, 60~65세 등 5개 층으로 층화

[제2단계] 층별 표본추출단위 확정

- 지역별 틸북거주자수를 기준으로 한 표본 분배를 통해 지역별 표본추출 단위 (Primary Sampling Unit of region) 확정
- 성별 틸북거주자수를 기준으로 한 표본 분배를 통해 성별 표본추출 단위 (Primary Sampling Unit of sex) 확정
- 연령별 틸북거주자수를 기준으로 한 표본 분배를 통해 연령별 표본추출 단위 (Primary Sampling Unit of age) 확정

[제3단계] PSU_r, PSUs, PSU_a를 교차하여 최종 PSU 확정

- 지역별 표본추출단위(PSU_r), 성별 표본추출단위(PSUs), 연령별 표본추출단위(PSU_a)를 교차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최종 표본추출단위(PSU) 확정

[제4단계] 조사대상자 추출

- 최종 표본추출단위에서 조사 대상자 무작위 추출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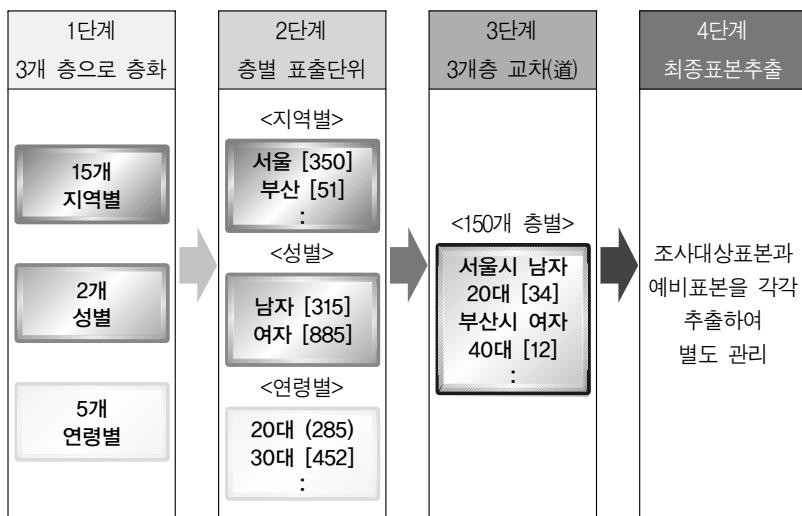
III

IV

V

VI

VII



[그림 3-1]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 표본추출방법의 단계별 내용

표본 중 남자는 315명(26.3%)이었고, 여자는 885(73.7%)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런 성비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인구의 65%가 여자이고, 최근 수년 사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80% 가량이 여자라는 점을 반영한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83명(23.6%), 30대가 455명(37.9%), 40대가 332명(27.7%), 50대가 101명(8.4%), 60대가 29명(2.4%)이었다. 거주 지역별로 서울에 350명(29.2%), 경기 320명(26.7%), 인천 114명(9.5%)이 거주하여 수도권에 전체 응답자의 64%가 집중되어 있다. 그 외 지역으로는 부산·대구 및 경상도 193명(16.1%), 광주 및 호남 87명(7.2%), 대전 및 충청 106명(8.8%), 강원 30명(2.5%)이 분포되어 있다.

■ 표-3-2_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 표본 추출 내용

지 역 별	연령별											합계	
	20대		30대		40대		50세		60~65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표본수	%	
지 역 별	서울	34	56	29	91	30	62	13	24	4	7	350	29.2
	부산	4	6	4	15	4	12	2	2	1	1	51	4.3
	대구	4	5	3	15	3	7	1	4	0	0	42	3.5
	인천	9	20	9	36	7	22	4	5	0	2	114	9.5
	광주	3	6	3	12	3	6	1	1	0	0	35	2.9
	대전	2	6	2	6	1	7	1	2	0	1	28	2.3
	울산	0	1	1	6	2	3	1	1	0	0	15	1.3
	경기	25	55	20	109	19	65	7	13	2	5	320	26.7
	강원	2	4	2	12	2	6	0	2	0	0	30	2.5
	충북	2	7	1	10	4	9	1	2	0	0	36	3.0
	충남	3	4	1	13	4	10	1	3	1	2	42	3.5
	전북	1	3	1	9	2	5	1	1	0	0	23	1.9
	전남	1	3	2	10	3	7	1	1	0	1	29	2.4
	경북	3	6	2	12	4	8	1	2	0	1	39	3.3
	경남	2	6	4	15	3	12	2	1	0	1	46	3.8
합계		95	188	84	371	91	241	37	64	8	21	1,200	100.0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먼저 북한에서의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고등중 중퇴 이하(무학, 인민학교 중퇴 및 졸업, 고등중학교 중퇴) 122명(10.2%), 고등중 졸업 785명(65.4%), 전문대 중퇴 및 졸업 140명(11.7%), 대학 중퇴 및 졸업(대학원 졸업 포함) 153명(12.8%)로 나타나 응답자의 가장 일반적인 학력 수준은 고등중 졸업이다.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9.3%에 불과해서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주관적) 계층 지위를 살펴보면 중상류층 이상 216명(18%), 중간층 502명(41.8%), 중하류층 103명(8.6%), 하류층(극빈층 포함) 379명(31.6%)으로 중간층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하류층의 비율이 높았다. 한국에 입국한 연도를 살펴보면 2000~2002년 입국자 102명(8.5%), 2003~2006년 입국자 454명(37.8%), 2007~2010년 입국자 644명(53.7%)로 2007년 이후에 입국하여 국내 거주 기간

이 3년 이하의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7년 동안 거주한 사람들이 많았다. 현재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살펴보면 상용직 근로자 190명(15.8%), 임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 81명(6.8%),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 23명(1.9%), 주부 192명(16%), 학생 137명(11.4%), 실업자 210명(17.5%), 비경제활동자 282명(23.5%)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24.5%만이 어떤 형태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75.5%는 주부, 학생, 실업, 기타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혼인 상태는 미혼 493명(41%), 결혼 394명(32.8%), 이혼 153명(12.8%), 별거 59명(4.9%), 사별 75명(6.3%), 기타 26명(2.2%)의 분포를 보였다. 이혼, 별거, 사별의 이유로 가족이 해체된 사례가 많아서 불안정한 가족구조와 관계를 보였다. 현재 계층 지위를 살펴보면 중상류층 이상 37명(3.1%), 중간층 229명(19%), 중하류층 140명(11.7%), 하류층(극빈층 포함) 794명(66.2%)로 하류층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2/3에 해당했다. 북한에서의 계층 지위와 현재 계층 지위를 비교하면 대다수가 신분하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3-3_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전체	사례수	유효백분율
성별		
남자	315	26.3
여자	885	73.7
연령		
20대	283	23.6
30대	455	37.9
40대	332	27.7
50대	101	8.4
60대 이상	29	2.4
북한 학력		
고등중 중퇴 이하	122	10.2
고등중 졸업	785	65.4
전문대 ¹	140	11.7
대학 ²	153	12.8

전체	사례수	유효백분율
북한 계층		
중상류층 이상	216	18.0
중간층	502	41.8
중하류층	103	8.6
하류층 ³	379	31.6
한국 입국 연도		
2000~2002	102	8.5
2003~2006	454	37.8
2007~2010	644	53.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근로자	190	15.8
임시직 근로자	83	6.9
일용직 근로자	81	6.8
자영업자	19	1.6
고용주	4	0.3
무급가족종사자	2	0.2
주부	192	16.0
학생	137	11.4
실업자	210	17.5
비경제활동자 ⁴	282	23.5
혼인 상태		
미혼	493	41.0
결혼	394	32.8
이혼	153	12.8
별거	59	4.9
사별	75	6.3
기타	26	2.2
현재 계층		
중상류층 이상	37	3.1
중간층	229	19.0
중하류층	140	11.7
하류층	794	66.2

주 1) 전문대는 전문대 중퇴자와 졸업자 포함
 2) 대학은 대학 중퇴자, 졸업자, 대학원 졸업자 포함
 3) 하류층은 극빈층 포함

4) 비경제활동자는 질병 또는 은퇴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 포함

I

II

III

IV

V

VI

VII

2.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조사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8일에 실시한 2010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설문조사(이하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조사’로 표기)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16개 광역시도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1:1 대면면접방법을 사용해서 실시되었다. 조사의 주된 목적은 한국인의 민족정체성, 국민정체성, 국가자부심, 역사인식, 사회인식, 북한 및 통일인식, 대외인식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0년 조사에서는 특별히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 다문화적 소수자집단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조사 결과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 북한이탈주민 정체성 인식,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504명(49.5%), 여자가 515명(50.5%)로 거의 동수이며, 연령은 20대가 19.5%, 30대 21.4%, 40대 22.4%, 50대 17.3%, 60대 이상이 19.4%이다. 직업은 사무/관리/전문직이 22.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부(20.2%), 자영업(19.5%), 판매/영업/서비스직이 15.7%의 순서로 분포되었다. 농/임/어업 종사자는 1.9%에 불과해서 대체로 도시적 특성의 직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학력은 중졸 이하 16.3%, 고졸 40.4%, 대학 재학 이상 43%로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았다. 계층은 최상위계층 0.4%, 중상위계층 6.1%, 중상층 34.7%, 중하위계층 44.4%, 하위계층 14.3%로 중상층을 기준으로 상위계층보다 하위계층이 더 많았다. 거주 지역은 서울 21%, 인천/경기 28%, 대전/충청 10.1%, 광주/전라 10.3%, 부산/울산/경남 16%, 대구/경북 10.4%, 강원/제주 4.2%로 분포됐다.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념 성향은 진보 27.4%, 중도 42.6%, 보수 30%로 진보와 보수의 비율이 대체로 동일했다.

■ 표-3-4_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전체	사례수	유효백분율
성별		
남자	504	49.5
여자	515	50.5
연령		
20대	199	19.5
30대	218	21.4
40대	228	22.4
50대	176	17.3
60대 이상	198	19.4
직업		
농/임/어업	19	1.9
자영업	199	19.5
판매/영업/서비스	160	15.7
생산/기능/노무직	79	7.7
사무/관리/전문직	233	22.8
주부	206	20.2
학생	56	5.5
무직	48	4.7
기타/무응답	20	1.9
학력		
중졸 이하	166	16.3
고졸	412	40.4
대학 재학 이상	438	43.0
모름/무응답	3	0.3
계층		
최상위계층	4	0.4
중상위계층	62	6.1
중상층	354	34.7
중하위계층	452	44.4
하위계층	146	14.3

I

II

III

IV

V

VI

VII

전체	사례수	유효백분율
거주 지역		
서울	214	21.0
인천/경기	285	28.0
대전/충청	103	10.1
광주/전라	105	10.3
부산/울산/경남	163	16.0
대구/경북	106	10.4
강원/제주	42	4.2
이념 성향		
진보 (0~4)	279	27.4
중도 (5)	434	42.6
보수 (6~10)	306	30.0

3.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앞서 소개한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했는데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 2010년 12월에 실시한 별도의 설문조사에서 동일한 이미지 척도를 사용했다. 이 조사는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와 사회학과 BK21갈등사회교육연구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공동으로 실시했다(이하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로 표기). 표본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남녀 1,207명이고 1:1 대면면접방법을 사용해서 조사되었다. 조사의 주된 목적은 사회갈등의 수준과 원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2010년에 실시된 제2차 한국인의 갈등의식 조사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사회갈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평가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했다.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526명(51.2%), 여자가 501명(48.6%)로 남녀 비율이 거의 동일했고, 연령은 20대 22.4%, 30대 26.7%, 40대 28.5%, 50대 이상 22.3%로 분포됐다. 학력은 고졸 이하 48.5%, 전문대 15.4%, 대학 이상 36%로 나타났고, 직업은 화이트 칼라 28.4%, 블루 칼라 30.2%, 자영업 16.4%, 주부 16%, 학생 6.8%, 기타 2.2%로 분포됐다. 계층 지위는 경제적 수준별로 최하층에서 최상층 까지 10개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상류층 0.3%, 중상류층 41%, 중간층 32.8%, 중하류층 34.7%, 하류층 1.3%로 나타났다. 개인의 사회적 태도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념 성향은 진보 42.2%, 중도 33.5%, 보수 24.6%로 앞서 소개했던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조사의 응답자들과 비교해서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 표-3-5_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전체	사례수	유효백분율
성별		
남자	526	51.2
여자	501	48.8
연령		
20대	230	22.4
30대	275	26.7
40대	293	28.5
50대 이상	229	22.3
학력		
고졸 이하	498	48.5
전문대	158	15.4
대학 이상	370	36.0

I

II

III

IV

V

VI

VII

전체	사례수	유효백분율
직업		
화이트칼라	292	28.4
블루칼라	310	30.2
자영업	168	16.4
주부	164	16.0
학생	70	6.8
기타	23	2.2
계층 ¹⁾		
상류층(9~10)	3	0.3
중상류층(6~8)	318	41.0
중간층(5)	337	32.8
중하류층(2~4)	356	34.7
하류층(0~1)	13	1.3
거주 지역		
서울	226	22.0
인천/경기	305	29.7
대전/충청	99	9.6
광주/전라	97	9.4
부산/울산/경남	108	10.5
대구/경북	159	15.5
강원/제주	33	3.2
이념 성향		
진보 (0~4)	433	42.2
중도 (5)	344	33.5
보수 (6~10)	246	24.6

주 1) 계층지위는 경제적 수준별로 최하층에서 최상층까지 골고루 10개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대답하게 하여 측정함

4. 설문조사 측정 도구

설문조사 문항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모듈과 각 집단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모듈로 구성되었다. 공통 모듈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상호인식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서 선행연구에서 소개했던 동서독인의 상호 이미지 척도에 한국상황에 적합한 문항들을 추가했다. 개별 모듈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기 인식과 정체성, 사회문화 적응도, 생활만족도로 구성되었고, 남한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사회적 거리감, 정착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이미지와 남한주민 이미지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이 자신과 남한주민에 대해 갖는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인식 내용 21문항과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 내용 2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문항은 형용사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자신에 대한 이미지 문항들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크론바하 α 값은 0.68이었고, 남한주민에 대한 이미지 문항들의 크론바하 α 값은 0.63이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자기인식 문항 1문항, 탈북 사유 1문항, 북한과 남한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16문항 (채정민(2003)이 개발한 문화적응지향성 척도,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북한 문화정체성 문항들의 크론바하 α 값은 0.70이었고, 남한 문화정체성 문항들의 크론바하

I

II

III

IV

V

VI

VII

α 값은 0.80이었다.

3)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대응방식과 사회문화적응도

객관적인 생활조건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활조건에 관한 1문항, 대응방식에 관한 1문항을 사용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사회문화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18문항을 질문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응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매우 불만족'~'매우 만족')에 관한 10문항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사회문화적응 수준의 크론바하 α 값은 .87이었다.

4)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거리감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두 개의 질문을 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사람, 남한사람, 북한출신 남한사람, 재외동포 중에서 어떤 사람에 가까운 것인가를 선택하게 했다. 이 문항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사용했기 때문에 질문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문제가 되는 것에 관한 6문항을 질문해서 남한주민의 인식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를 파악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 가를 4점 척도('완전히 남이다'~'대한민국 국민이다')로 구성된 1문항으로 측정했다. 이 문항은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국제결혼가정 자녀 등 여타 다문화적 소수자집단에 대해서도 질문되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상대적 사회적 거리감을 비교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사용해서 ‘그저 알고 지내는 것’에서부터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까지의 7단계로 사회적 거리감의 수준을 구분하고, 이 척도를 사용해서 장애인, 선진국출신 외국인, 개발도상국출신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해서 여러 소수자집단에 대한 남한주민의 사회적 거리감을 비교했다. 끝으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다문화주의와 북한이탈주민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외국인 이주민과 별개의 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문화 시각에서 같이 보아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5. 심층면접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상호인식과 같이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총 3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면접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협조로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에 속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명단을 제공 받아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협조를 의뢰하고 조사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성별로 남자 13명, 여자 17명, 연령별로 10대 1명, 20대 6명, 30대 9명, 40대 7명, 50대 3명, 60대 3명, 70대 1명으로 다양했다. 직업은 무직자와 취업자가 모두 포함됐고 취업자의 직업은 버스 운전사, 보험설계사, 요양보호사, 근로자, 통일교육 강사, 여행 가이드, 사회적 기업가 등 다양했다. 면접 기간은 2010년 9월 4일부터 11월 13일이었다. 개인당 면접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면접 장소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면접대상자의 집 또는 사무실이었다. 면접 방법은 연구자와 면접대상자 간에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면접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후에 녹취하여 면접 노트를 작성했다.

I

II

III

IV

V

VI

VII

면접 내용은 북한에서의 계층 배경, 탈북 동기,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체류 경험, 한국에서의 적응 수준 및 방식, 남한주민의 편견 및 차별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정체성 등이었다. 북한에서의 계층 배경, 탈북 동기, 제3국에서의 체류 경험 등이 한국에서의 생활 정향성(life orientation)과 정체성, 상호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정체성 유형 별로 개인의 계층 배경, 탈북 동기, 제3국에서의 체류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찾고자 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배경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IV.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주민과의 상호인식

1. 북한과 남한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이주민들은 모국을 떠나 새로운 거주국에서 살아갈 때 ‘문화변용’(acculturation)을 경험한다. 문화변용은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집단의 사람들이 장기간의 접촉을 하여 발생하는 모든 변화의 과정”이라고 정의된다(Berry, 2002). 베리(Berry, 1997)는 문화변용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1단계는 접촉단계로서 서로 다른 2개의 문화가 만나는 초기 단계이다. 제2단계는 갈등단계로서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주류사회가 이민자들에게 변화의 압력을 가하는 단계이다. 이때 이민자들은 모국과 거주국의 문화정체성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제3단계는 해결단계로서 문화변용의 특정한 전략을 사용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는 단계이다. 또한 베리(Berry, 1987)는 소수민족집단 이민자들의 문화변용이 “다른 인종과 민족집단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와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이나 관습의 유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통합, 동화, 고립, 주변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통합(integration)은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면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동화(assimilation)는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과정에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상실하여 주류집단에 흡수되는 경우이다. 고립(isolation)은 이민자들이 사회참여를 활발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이들은 보통 차이 나타운과 같은 민족 엔클레이브(enclave, 소수의 이문화 집단의 거주지)에 격리되어 산다. 끝으로 주변화(marginality)는 주류사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도 잃어버리는 경우로서 사회의 밑바닥 계층으로 전락하여 기성질서에 반항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갖게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문화변용의 수준과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북한의 문화와 북한주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 10개, 남한의 문화와 남한주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 10개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지금 남한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정신적 뿌리는 북한이라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다’는 북한주민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문항이고, ‘나는 진정한 남한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남한주민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보통’ 3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었고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의 차이를 비교해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총 20개 문항의 빈도분포표와 평균점수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 표-4-1_ 북한과 남한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태도

(단위: %, 점)

문 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차이	평균 점수
1. 지금 남한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정신적 뿌리는 북한이라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다	21.1	17.9	22.1	26.3	12.6	-0.2	2.91
2. 나는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30.4	26.9	21.6	16.2	4.8	-36.3	2.38
3. 나는 진정한 남한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0.9	1.8	10.1	40.4	46.7	84.4	4.30
4. 나는 자식들이(여기서 같이 산다면) 북한의 풍습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겠다	30.7	26.8	19.7	15.5	7.4	-34.6	2.42
5. 나는 북한 출신자들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	24.6	25.4	27.5	17.1	5.3	-27.6	2.53
6. 나는 남한에서 경험한 새로운 생활이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다고(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1	3.5	21.2	47.0	27.3	69.6	3.96
7. 북한에 남아 있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11.1	16.7	31.1	29.3	11.9	13.5	3.14
8. 나는 북한에서의 삶을 자주 떠올리며 그리워한다	18.8	21.0	25.7	26.4	8.2	-5.2	2.84
9. 나는 북한 출신자끼리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식 말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36.9	35.1	17.0	8.6	2.4	-60.9	2.05

I

II

III

IV

V

VI

VII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차이	평균 점수
10. 나는 남한사회에서 고유하게 발전된 생활양식을 받아들이겠다	0.5	1.3	13.2	45.8	39.3	83.3	4.22
11. 나는 일상생활에서 남한식 말투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겠다	1.4	2.9	9.5	38.8	47.4	81.8	4.28
12. 북한 출신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15.2	21.3	35.5	21.7	6.3	-8.6	2.82
13. 나는 자녀들이(여기에서 같이 살거나 산다면) 남한 사회의 문물을 잘 받아들이도록 해 주겠다	1.3	1.0	9.2	37.7	50.8	86.3	4.36
14. 나는 남한 사회에 대한 지식들을 즐거운 기분으로 배우려고 한다	0.4	0.8	9.3	41.3	48.2	88.2	4.36
15. 나는 새롭게 사귄 남한 사람들과 허물 없이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겠다	0.9	1.9	9.5	41.9	45.8	84.8	4.30
16. 나는 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우에도 어색하거나 낯선 느낌이 들지 않는다	6.9	10.6	20.3	34.5	27.7	44.7	3.65

주 1) '차이'는 긍정적 응답의 합('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에서 부정적 응답의 합('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을 뺀 값으로 그 값이 클수록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한다.

주 2) 위의 문항 1, 2, 4, 5, 7, 8, 9, 12는 북한문화와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고, 문항 3, 6, 10, 11, 13, 14, 15, 16은 남한문화와 정체성과 관련된 것임.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문화 및 정체성 수용 수준은 평균 4.19점(표준편차 .53점)이었고, 모든 문항에서 척도의 중간치인 3.0점을 넘어서(최저 3.65점~최고 4.36점) 이들이 남한문화를 받아들이고, 남한주민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남한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는 자세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진정한 남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진술에 대해 응답자의 2.7%만이 동의하지 않고 87%는 동의할 정도로 남한사람이 되고 인정받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들이 북한문화와 북한주민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에는 보통 이하(평균 2.64점, 표준편차 .68점)로 응답하고 있어 북한문화와 정체성

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자식들이(여기서 같이 산다면) 북한의 풍습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겠다.’는 진술에 대해 23%가 동의한 반면 58%는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출신자끼리 북한식 말투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며, 북한의 지식과 문화를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인식해서 가능하면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금 남한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정신적 뿌리는 북한이라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한 사람들이 39%,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39%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비록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이 싫어서 탈출했고 북한에 비교해서 남한의 문물과 생활양식을 높게 평가하지만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북한문화/정체성에 대한 태도와 남한문화/정체성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해보았더니 상관관계 계수가 $r=-.08$ 로서 크기도 작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양쪽의 문화/정체성 간에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고 해서 다른 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소개했던 베리의 문화변용 모델을 사용해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문화/정체성 유지 수준과 남한문화/정체성 수용 수준을 조합하여 통합형, 동화형, 고립형, 주변화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여기서 북한문화/정체성과 남한문화/정체성 수준의 중간점으로 응답 범주의 ‘보통’에 해당했던 점수 3점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작으면 ‘약함’으로, 그것보다 크면 ‘강함’으로 구분하였다. <표 4-2>에서 보듯이 통합형은 북한문화/정체성과 남한문화/정체성 수준이 둘 다 강한 경우이고, 동화형은 북한문화/정체성은 약한데 남한문화/정체성은 강한 경우이다. 고립형은 북한문화/정체성은 강한데 남한문화/정체성은 약한 경우이고, 주변화형은 북한문화/정체성과 남한문화/정체성이 둘 다 약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유형에 따라 응답자들을 분류한 결과 동화형이 전체 응답자의 6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통합형(33.3%), 주변화형(0.9%), 고립형(0.2%)

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앞서 <표 4-1>에서 북한과 남한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20개의 문항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의 문화를 수용하고 남한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4-2_ 북한이탈주민의 문화변용과 정체성 유형

(단위: 명, %)

		북한문화정체성	
		강함	약함
남한문화 정체성	강함	통합형 379(33.3)	동화형 746(65.6)
	약함	고립형 2(2)	주변화형 10(.9)

2.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인식

1) 자기인식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북한사람, 남한사람, 북한출신 남한사람, 동포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규정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4-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 출신 남한사람으로 보는 사람(50.6%)이 제일 많았고, 남한사람(24.9%), 북한사람(15.3%), 동포(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다수는 남한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했지만 자신을 북한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15.3%나 되고, 동포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9.2%나 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앞서 연구방법에서 소개했던 2010년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019명의 응답자 중 43.9%가 북한출신 남한사람, 42.9%가 북

한사람, 11.2%가 남한사람, 1.2%가 동포로 인식하고 있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의 인식 차이는 남한주민의 대다수는 북한이탈주민을 주로 북한출신자(북한출신 남한사람 또는 북한사람)로 보는 반면 북한이탈주민 자신은 남한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남한문화/정체성 수용성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남한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남한주민은 여전히 이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 표 4-3_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인식과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범주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빈도수	유효백분률	빈도수	유효백분률
북한출신 남한사람	591	50.6	447	43.9
남한사람	291	24.9	114	11.2
북한사람	178	15.3	437	42.9
동포	107	9.2	12	1.2
합계	1,167	100.0	1,019	100.0

자료: 2010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 2010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조사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소개했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인 (사)새조위가 2009년 5~6월에 남한주민 500명과 북한이탈주민 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상호인식 조사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새조위의 조사에서는 남한주민 응답자의 41%가 북한이탈주민을 ‘동포’, 14.6%가 북한사람으로 생각한 반면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58.4%가 자신들을 북한사람으로, 27.8%는 동포로, 6.3%가 남한사람으로 생각했다(신미녀, 2009: 52). 새조위 조사에서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차이가 큰 것은 동일하지만 앞서 소개한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와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조사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새조위 조사의 표본이 확률표본이 아닌 임의표본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인식과 관련해서

는 <표 4-3>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을 주로 북한출신자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을 주로 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사유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탈북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것은 사회심리학적 개념으로 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후 남한사회에서의 적응,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해석, 정체성 등에 영향을 준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한 사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탈북했다는 사람이 73.3%로 제일 많았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탈북했다는 사람 12.0%, 개인적 문제 때문에 탈북한 사람 5.5%, 본인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탈북한 사람 2.3%, 가족 결합을 위해 탈북한 사람 2.0%, 종교의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경제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 표-4-4_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사유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범주	빈도수	유효백분율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탈북한 사람	880	73.3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탈북한 사람	144	12.0
개인적 문제 때문에 탈북한 사람	66	5.5
본인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탈북한 사람	28	2.3
가족 결합을 위해 탈북한 사람	24	2.0
종교의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	13	1.1
기타	45	3.8
합계	1,200	100.0

3. 생활조건과 대응방식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설명했듯이 개인의 적응유형은 생활조건과 대응방식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는 주로 객관적 생활조건(예를 들어, 취업, 소득, 건강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이탈주민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동일한 생활조건에서도 개인이 어떤 대응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사회적응의 유형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활조건뿐만 아니라 대응방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현재 생활조건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생활조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 “본인의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건강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상황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현재 생활이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570명(47.6%),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369명(30.8%),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61명(21.7%)으로 나타나서, 대체로 현재 생활조건이 어렵다고 보고한 응답자들이 더 많았다.

■ 표-4-5_ 생활조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범주	빈도수	유효백분율
매우 힘들고 어렵다	159	13.3
대체로 힘들고 어렵다	411	34.3
보통이다	369	30.8
별로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	179	14.9
전혀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	82	6.8
합계	1,200	100.0

I

II

III

IV

V

VI

VII

VIII

2) 대응 방식

현재 생활조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개선될 것 같아서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가 55.5%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개선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가 36.6%였다. ‘이렇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6.2%,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8%에 불과했다. 따라서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비록 현재 생활조건은 어렵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4-6_ 현재 생활조건에 대한 대응 방식

(단위: 명, %)

개선 노력 정도	빈도수	유효백분율
개선될 것 같지 않아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8	0.7
개선될 것 같지 않아 별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13	1.1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다	74	6.2
개선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	439	36.6
개선될 것 같아서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665	55.5
합계	1,199	100.0

앞서 이론 부분에서 소개했듯이 생활조건과 대응방식을 조합하여 네 가지의 적응유형을 구분하였다. 여기서 생활조건은 ‘대체로 힘들고 어렵다.’와 ‘매우 힘들고 어렵다.’를 합해서 ‘고위험군’으로, ‘전혀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 ‘별로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를 합해서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대응방식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를 합쳐서 ‘강점 관점’으로,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별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다.’를 합쳐서 ‘약점 관점’으로 범주화하였다. 위 두 가지 변수들을 조합하여 적응유형을 극복형, 발전형, 좌절형, 과소성취형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들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떻게 분포되는가를 분석한 결

과 발전형이 4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극복형(42.4%), 좌절형(5.1%), 과소성취형(2.8%)의 순이었다. 따라서 앞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남한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듯이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재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 표-4-7_ 생활조건과 대응방식 간의 관계

(단위: 명, %)(주관적 기준 사용)

		생활조건	
		고위험군	저위험군
대응방식	강점관점	극복형 508(42.4)	발전형 596(49.7)
	약점관점	좌절형 61(5.1)	과소성취형 34(2.8)

이러한 적응유형은 북한이탈주민이 주어진 생활조건에 어떤 형태로 대응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여기서 사용한 생활조건의 기준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생활조건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에는 취업 여부, 소득 수준, 건강 여부, 가족 해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준들을 동시에 조합할 수 있는 지표는 현실적으로 없어서 부득이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객관적 기준으로 삼았다.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을 지표로 삼게 되면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상당수의 표본이 분석에서 털락하게 되어 문제가 있고, 개인 소득 또는 가족 소득을 삼게 되면 실제 보고된 수입과 지출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해서 신뢰성에 의심이 갔다. 따라서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동시에 포함하면서 개인과 가족의 소득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인 재산 수준을 생활조건의 객관적 지표로 삼았다. 재산 수준은 상류층에서 극빈자층까지 6단계로 측정하였는데 상류층, 중상류층, 중간층은 저위험군으로, 중하류층, 하류층, 극빈자층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저위험군은 22.2%이었고,

I

II

III

IV

V

VI

VII

고위험군은 77.8%이었다. 이렇게 분류한 생활조건 유형에 강점관점과 약점관점의 대응방식을 조합하여 네 가지의 적응유형의 분포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극복형 71.4%, 발전형 20.7%, 좌절형 6.4%, 과소성취형 1.5%로 나타나서 앞서 주관적 기준을 사용했을 때와 약간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주관적 기준을 사용했을 때는 발전형과 극복형이 각각 49.7%와 42.4%로 비슷했으나 객관적 기준을 사용했을 때는 극복형이 발전형보다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주관적 기준을 사용했을 때는 단지 재산 수준과 같은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건강 등 여러 측면의 생활조건을 물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 적어서 적응유형으로 극복형에 속하게 되는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별도의 분석에서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을 사용해서 사회적응 수준, 상호인식, 생활만족도 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생활조건은 소득뿐만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등 여러 측면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사용한 생활조건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 표-4-8_ 생활조건과 대응방식 간의 관계

(단위: 명, %)(객관적 기준 사용)

		생활조건	
		고위험군	저위험군
대응방식	강점관점	극복형 856(71.4)	발전형 248(20.7)
	약점관점	좌절형 77(6.4)	과소성취형 18(1.5)

4. 남한사회 적응 수준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설명했듯이 사회적응은 경제, 사회관계, 문화, 심리, 건강 등 다차원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문항들을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수준을 측정했다. 총 18개의 문항들을 사용해서(문항 8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 역채점하여 총점을 구함) 조사한 결과 5점 척도에서 평균 3.33점(표준 편차 .64점)을 보였고, <표 4-9>에서 나타나듯이 전체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한주민과 어울리거나 남한사회의 법·제도에 적응하거나 남한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거나 하는 것과 같은 사회문화 적응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한에서 사용되는 낯선 언어(한자어나 외래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많아서 언어소통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경제적 적응문제로 본 조사에서도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직업 및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소득 및 수입이 생활하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 외 심리적인 면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혹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 표-4-9_ 남한사회 적응수준

(단위: %, 점)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차이	평균 점수
1. 나는 남한 주민들과의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21.7	21.3	27.2	24.2	5.7	-13.1	2.7
2. 남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꺼릴 때가 많다	34.3	34.2	15.3	14.1	2.1	-52.3	2.2

I

II

III

IV

V

VI

VII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차이	평균 점수
3. 경찰청 또는 국정원 같은 정부 기관들이 나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한다고 느낀다	39.8	28.9	16.0	13.0	2.3	-53.3	21
4. 남한에서 사용되는 낯선 언어(한자어나 외래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13.8	14.8	20.8	37.7	12.9	22.0	3.2
5. 남한의 문화에 적응이 잘 안 된다	19.5	30.1	25.2	21.6	3.7	-24.2	26
6. 사람들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28.1	37.8	18.0	14.1	2.1	-49.7	2.2
7.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6.0	20.4	19.2	32.3	12.1	8.0	3.0
8. 나는 직업 및 직장생활에 만족한다	11.0	18.8	32.7	25.9	11.6	7.7	3.1
9. 소득 및 수입이 생활하기에 부족하다	4.0	11.1	24.0	40.9	20.0	45.8	3.6
10.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진다	21.2	34.6	23.7	17.6	2.9	-35.2	2.5
11.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13.1	19.1	27.8	25.6	14.4	7.8	3.1
12.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나온 사실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18.3	22.6	18.4	29.2	11.5	-0.3	2.9
13. 나는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18.0	23.8	20.2	30.3	7.8	-3.7	2.9
14. 남한사회에서는 내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괴롭다	18.0	31.4	24.4	21.5	4.7	-23.3	2.6
15. 남한주민들과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할 때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	24.6	31.1	18.6	22.0	3.8	-29.8	2.5
16. 나는 남한사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25.3	32.8	24.1	15.5	2.3	-40.3	2.4
17. 나는 남한주민들과 어울릴 때 어색하거나 낯선 느낌이 듈다	29.7	31.7	19.5	17.4	1.8	-42.3	2.3
18. 나는 남한사회의 법·제도에 잘 적응이 안 된다	25.6	31.2	23.6	16.2	3.5	-37.0	2.4

앞에서 사회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18개의 문항들에 대한 응답 결과를 요인분석해서 주요한 적응 수준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크게 사회문화 부적응, 편견과 차별, 경제적 부적응,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나타났다.

■ 표-4-10_ 사회적응 요인분석 결과표

문 항	구성요소				공통성
	사회문화 부적응	편견과 차별	경제적 부적응	죄책감과 그리움	
남한주민들과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할 때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	.470				.458
남한의 문화에 적응이 잘 안 된다	.712				.566
남한에서 사용되는 낯선 언어(한자어나 외래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619				.456
남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꺼릴 때가 많다	.714				.573
나는 남한주민들과 어울릴 때 어색하거나 낯선 느낌이 듈다	.714				.633
나는 남한사회의 법·제도에 잘 적응이 안 된다	.682				.537
나는 남한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499				.571
나는 남한 주민들과의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545				.530
고유치(Eigen Value) : 5.781					
사람들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679			.596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진다		.728			.588
남한사회에서는 내 능력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괴롭다		.633			.654
나는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633			.614
고유치(Eigen Value) : 1.416					
소득 및 수입이 생활하기에 부족하다			.702		.517
내가 잘 하거나 하고 싶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656		.535
고유치(Eigen Value) : 1.206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나온 사실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823	.729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794	.702
고유치(Eigen Value) : 1.107					

I

II

III

IV

V

VI

VII

VIII

각 요인의 평균 점수를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 앞서 개별 문항들을 분석하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적 부적응 수준이 가장 높았고(3.3점), 그 다음으로 죄책감과 그리움(3점), 편견과 차별(2.6점), 사회문화 부적응(2.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문제와 심리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지만 사회문화 부적응과 편견과 차별 문제는 보통 수준보다 낮아서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 표-4-11_ 남한사회 적응수준의 요인별 비교

문항	평균 점수
사회문화 부적응	2.5
편견과 차별	2.6
경제 부적응	3.3
죄책감과 그리움	3

남한사회 적응 수준을 앞서 구분한 적응 유형과 교차하여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적응 유형에 따라 인지하는 적응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부적응에서는 좌절형(2.99점)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다음으로 과소성취형(2.76점), 극복형(2.73점), 발전형(2.2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편견과 차별에서는 좌절형(3점), 극복형(2.8점), 과소성취형(2.73점), 발전형(2.28점)의 순으로, 경제적 부적응에서는 좌절형(3.84점), 극복형(3.78점), 과소성취형(3.19점), 발전형(2.9점)의 순으로, 죄책감과 그리움에서는 좌절형(3.32점), 극복형(3.26점), 발전형(2.79점), 과소성취형(2.6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좌절형이 사회적응에서 가장 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발전형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4-12_ 적응 유형별 적응 수준

(단위: 점수, 명)

적응 요인	적응 유형				
	극복형	발전형	과소성취형	친절형	계
사회문화적 부적응	2.73 (502)	2.28 (587)	2.76 (34)	2.99 (60)	2.52 (1183)
편견과 차별	2.80 (506)	2.28 (589)	2.73 (34)	3.00 (60)	2.55 (1189)
경제적 부적응	3.78 (505)	2.90 (595)	3.19 (34)	3.84 (60)	3.33 (1194)
죄책감과 그리움	3.26 (506)	2.79 (591)	2.65 (34)	3.32 (61)	3.01 (1192)

5. 상호인식

앞서 선행연구에서 소개했듯이 독일에서 동서독 출신 주민들이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서로 간의 사회적 거리감과 관계 지향성을 결정한다. 본 조사에서는 알렌스바흐 여론조사연구소가 사용했던 이미지에 대한 형용사들 외에도 추가로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형용사들을 사용하여 총 21개의 형용사들을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과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주민 이미지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된 긍정적 평가로는 ‘친절하다’와 ‘적극적이다’의 경우 3.8점(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 ‘단정하다’, ‘근면하다’, ‘개방적이다’의 경우 3.7점 등이었다. 하지만 ‘경쟁적이다’의 경우에 4점을 주어서 남한주민이 상당히 경쟁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진실하다’(3점), ‘믿을만하지 않다’(2.9점), ‘피상적이다’(3.1점), ‘권위적이다’(3.1점) 등의 인상에 대해서도 보통 정도로 평가해서 특별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친절성, 근면성, 합리성, 적극성 등과 같은 측면에서는 남한주민을 좋게 평가를 하지만 진

I

II

III

IV

V

VI

VII

실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을 처음 대할 때는 친절하고 도움을 줄 것 같은 인상을 받다가도 막상 도움을 청하면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모른 척하거나 또는 남한에서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충고하는 것을 들으면서 남한사람은 곁과 속이 다르구나 하고 느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표-4-13_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주민 이미지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차이	평균 점수
1. 자기에 관심을 많이 둔다	2.9	6.9	23.8	47.5	18.8	56.4	3.7
2. 단정하다	1.3	6.0	30.1	50.3	12.3	55.2	3.7
3. 친절하다	1.1	2.7	25.7	54.0	16.5	66.8	3.8
4. 근면하다	0.6	4.2	32.2	47.4	15.7	58.3	3.7
5. 지적이다	0.6	3.3	42.5	41.4	12.2	49.7	3.6
6. 개방적이다	1.3	10.2	24.0	43.5	21.0	53.0	3.7
7. 유쾌해 보인다	1.2	8.6	31.1	44.6	14.5	49.3	3.6
8. 자비심이 많다	1.8	10.5	39.1	38.9	9.7	36.3	3.4
9. 진실하다	5.5	23.3	43.2	21.2	6.7	-0.9	3.0
10. 안락해 보인다	3.8	17.6	40.7	30.9	6.9	16.4	3.2
11. 돈에 인색하다	3.4	11.0	29.6	39.9	16.1	41.6	3.5
12. 관료적이다	11.7	35.7	32.8	15.3	4.5	-27.6	2.7
13. 믿을만하지 않다	6.4	25.0	43.9	19.8	5.0	-6.7	2.9
14. 피상적이다	5.7	22.2	37.8	28.5	5.9	6.5	3.1
15. 불만족해 보인다	8.1	30.3	41.5	17.4	2.7	-18.4	2.8
16. 깔끔하다	1.8	7.5	33.6	43.3	13.7	47.7	3.6
17. 합리적이다	1.3	7.4	37.4	44.3	9.6	45.1	3.5
18. 권위적이다	6.9	24.2	31.2	29.3	8.4	6.6	3.1
19. 경쟁적이다	1.3	4.7	17.3	47.8	29.0	70.7	4.0
20. 적극적이다	0.3	3.7	27.2	49.0	19.9	64.8	3.8
21. 거칠다	15.4	42.5	31.5	8.5	2.1	-47.3	2.4

2)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이미지에 대한 인식

남한주민 이미지에 관한 형용사들을 사용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남한주민에 비교해서 다소 떨어지는 중간 정도의 평가를 했다. 자신들의 특징적 이민자로 강하게 동의하는 것은 ‘거칠다’(3.6점), ‘깔끔하다’(3.6점), ‘단정하다’(3.5점), ‘자기에게 관심을 둔다’(3.4점), ‘지적이다’(3.4점), ‘경쟁적이다’(3.4점), ‘적극적이다’(3.4점) 등이다. 반면 자신들의 이미지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락해 보인다’(2.5점), ‘관료적이다’(2.6점), ‘개방적이다’(2.8점), ‘유쾌해 보인다’(2.8점) 등이다.

■ 표-4-14_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이미지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차이	평균 점수
1. 자기에 관심을 많이 둔다	2.9	13.8	31.1	40.7	11.6	35.6	3.4
2. 단정하다	0.8	8.0	40.8	41.3	9.0	41.5	3.5
3. 친절하다	3.9	27.1	46.3	19.3	3.5	-8.1	2.9
4. 근면하다	3.1	20.9	43.8	25.6	6.6	8.3	3.1
5. 지적이다	1.5	6.4	50.5	34.0	7.6	33.8	3.4
6. 개방적이다	6.6	32.9	36.6	19.9	3.9	-15.8	2.8
7. 유쾌해 보인다	6.9	33.0	38.9	18.6	2.7	-18.6	2.8
8. 자비심이 많다	6.0	21.8	43.0	23.9	5.4	1.5	3.0
9. 진실하다	4.2	17.1	40.0	30.2	8.5	17.4	3.2
10. 안락해 보인다	12.1	42.9	32.5	10.4	2.1	-42.5	2.5
11. 돈에 인색하다	5.5	22.5	41.0	25.7	5.4	3.2	3.0
12. 관료적이다	11.1	36.4	33.5	14.6	4.4	-28.5	2.6
13. 믿을만하지 않다	4.9	20.8	47.3	21.5	5.5	1.4	3.0
14. 피상적이다	6.4	25.0	41.8	21.6	5.2	-4.7	2.9
15. 불만족해 보인다	3.9	16.5	38.1	35.0	6.6	21.2	3.2
16. 깔끔하다	1.6	6.7	38.9	39.7	13.1	44.5	3.6

I

II

III

IV

V

VI

VII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차이	평균 점수
17. 합리적이다	3.7	17.7	48.0	25.4	5.2	9.3	3.1
18. 권위적이다	6.5	26.3	36.2	23.7	7.3	-1.8	3.0
19. 경쟁적이다	2.9	13.0	33.0	38.7	12.4	35.2	3.4
20. 적극적이다	2.2	13.2	35.3	38.1	11.2	33.9	3.4
21. 거칠다	3.2	11.7	24.6	40.5	20.0	45.7	3.6

3)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이미지에 대한 인식 비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표 4-15>에서 각 이미지에 주어진 평균 점수의 차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문항들에서 남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예를 들면, ‘친절하다’와 ‘개방적이다’의 경우 남한주민에게 각각 3.8점과 3.7점을 주었다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각각 2.9점과 2.8점을 주어서 평균 1점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특히 ‘거칠다’라는 문항에서는 남한주민에게 2.4점을 준 반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3.6점을 주어 평균 점수 차이가 1.2로 벌어졌다. 반면 진실성과 신뢰성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주민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통상적으로 자신들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비록 세련되지 못하고 직설적인 면은 있지만 의리가 있고 진실하다는 것과 일치한다.

■ 표-4-15_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이미지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 점)

문항	남한주민 이미지		북한이탈주민 이미지		두 집단 이미지 비교 평균점수 차이(A-B)
	차이	평균점수 (A)	차이	평균점수 (B)	
1. 자기에 관심을 많이 둔다	56.4	3.7	35.6	3.4	0.3
2. 단정하다	55.2	3.7	41.5	3.5	0.2
3. 친절하다	66.8	3.8	-8.1	2.9	0.9
4. 근면하다	58.3	3.7	8.3	3.1	0.6
5. 지적이다	49.7	3.6	33.8	3.4	0.2
6. 개방적이다	53.0	3.7	-15.8	2.8	0.9
7. 유쾌해 보인다	49.3	3.6	-18.6	2.8	0.8
8. 자비심이 많다	36.3	3.4	1.5	3.0	0.4
9. 진실하다	-0.9	3.0	17.4	3.2	-0.2
10. 안락해 보인다	16.4	3.2	-42.5	2.5	0.7
11. 돈에 인색하다	41.6	3.5	3.2	3.0	0.5
12. 관료적이다	-27.6	2.7	-28.5	2.6	0.1
13. 믿을만하지 않다	-6.7	2.9	1.4	3.0	-0.1
14. 피상적이다	6.5	3.1	-4.7	2.9	0.2
15. 불만족해 보인다	-18.4	2.8	21.2	3.2	-0.4
16. 깔끔하다	47.7	3.6	44.5	3.6	0
17. 합리적이다	45.1	3.5	9.3	3.1	0.4
18. 권위적이다	6.6	3.1	-1.8	3.0	0.1
19. 경쟁적이다	70.7	4.0	35.2	3.4	0.6
20. 적극적이다	64.8	3.8	33.9	3.4	0.4
21. 거칠다	-47.3	2.4	45.7	3.6	-1.2

앞에서는 21개의 형용사를 사용해서 두 집단에 대한 이미지를 비교하다보니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21개의 형용사에 대한 응답 결과를 요인 분석을 해서 주요 이미지에 대한 상호인식의 차이를 비교했다. 요인분석을 한 결과 21개의 문항들이 대체로 근면성·합리성·개방성·자비성, 이기성·신뢰성의 3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했다.

■ 표-4-16_ 남한주민 이미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표

문 항	구성 요소			공통성
	근면성·합리성	개방성·자비성	이기성·신뢰성	
친절하다	.544			.431
근면하다	.695			.546
똑똑하다	.629			.512
깔끔하다	.688			.477
합리적이다	.684			.475
적극적이다	.669			.467
고유치(Eigen Value) : 3.752				
개방적이다		.758		.619
유쾌해 보인다		.815		.705
자비심이 많다		.554		.489
고유치(Eigen Value) : 1.125				
돈에 인색하다			.583	.367
믿을만하지 않다			.787	.641
피상적이다			.782	.620
불만족해 보인다			.669	.498
고유치(Eigen Value) : 1.968				

■ 표-4-17_ 북한이탈주민 이미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표

문 항	구성 요소			공통성
	근면성·합리성	개방성·자비성	이기성·신뢰성	
친절하다	.455			.419
근면하다	.668			.509
똑똑하다	.648			.451
깔끔하다	.716			.523
합리적이다	.576			.393
적극적이다	.658			.459
고유치(Eigen Value) : 3.459				
개방적이다		.694		.507
유쾌해 보인다		.790		.658
자비심이 많다		.604		.473

문 항	구성 요소			공통성
	근면성·합리성	개방성·자비성	이기성·신뢰성	
고유치(Eigen Value) : 1.164				
돈에 인색하다			.539	.318
믿을만하지 않다			.776	.629
피상적이다			.828	.698
불만족해 보인다			.713	.553
고유치(Eigen Value) : 1.966				

3개의 요인별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근면성·합리성과 개방성·자비성에서 남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기성·신뢰성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이 자신보다 더 친절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합리적이고, 적극적이고, 개방적이지만 동시에 이기적이고,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표-4-18_ 요인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이미지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 점)

요인	남한주민 이미지	북한이탈주민 이미지	두 집단 이미지 비교
	평균점수(A)	평균점수(B)	평균점수 차이(A-B)
근면성·합리성	3.7	3.2	0.4
개방성·자비성	3.6	2.9	0.7
이기성·신뢰성	3.1	3.1	0.0

6. 남한생활 만족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수준은 취업, 직업 종류, 고용 안정성, 소득과 같은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기준에서도 측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생활만족도를 가족소득,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자녀교육, 여가활

동, 종교활동, 주거환경, 이웃관계, 사회참여활동, 생활 전체/전반에 걸쳐 총 10개의 항목에 걸쳐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평균 4.1점으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부관계(3.8점), 종교활동(3.7점), 자녀교육(3.6점), 사회참여활동(3.6점), 이웃관계(3.5점)의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가족 소득에 있어서는 평균 2.7점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듯이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경제적 적응이고 그 외의 생활영역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을 재확인해준다. 앞서 살폈듯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고 탈북 후 제3국에서 힘겹게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억압적인 북한에서 살다가 자유롭고 선진화된 남한에서 사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 표-4-19_ 남한생활 만족도

(단위: %, 점)

생활 영역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차이	평균 점수
1. 가족의 소득	9.2	27.1	46.7	14.7	2.3	-19.3	2.7
2. 부부 관계	2.0	4.3	31.5	38.6	23.6	55.8	3.8
3. 부모-자녀 관계	1.0	3.2	18.6	38.0	39.2	72.9	4.1
4. 자녀교육	2.5	9.7	34.5	33.5	19.8	41.1	3.6
5. 여가활동	3.4	10.1	44.2	29.8	12.5	29.0	3.4
6. 종교활동	1.4	4.9	38.2	34.6	20.9	49.1	3.7
7. 주거환경	3.8	10.1	35.5	37.5	13.0	36.6	3.5
8. 이웃관계	1.3	2.9	47.2	37.2	11.4	44.4	3.5
9. 사회참여활동	1.2	3.3	47.8	34.0	13.6	43.1	3.6
10. 생활 전체/전반	1.1	6.3	50.9	34.2	7.5	34.3	3.4

생활만족도는 생활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 못지않게 개인의 정체성 유형과 적응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분류한 정체성 유형과 적응 유형별로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했다. 먼저 정체성 유형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고립형과 주변화형에 속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동화형과 통합형에 속한 사람들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았다. 예를 들어, 가족 소득에서 고립형의 만족도가 2.2점이고 주변화형의 만족도가 2.43점인데 비교해서 동화형은 2.77점, 통합형은 2.67점이었다. 생활전체/전반에 걸친 만족도에서도 고립형은 3.1점이고 주변화형은 2.9점인데 반해 동화형은 3.43점, 통합형은 3.41점이었다. 이런 결과를 정리하면 이론적으로는 정체성 유형이 4가지이지만 생활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동화형과 통합형이 하나의 부류로, 고립형과 주변화형이 또 하나의 부류로 뮤일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북한문화와 정체성을 얼마나 강하게 유지하느냐보다 남한문화와 정체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4-20_ 정체성 유형별 남한생활 만족도

(단위: %, 점)

생활 영역	정체성 유형				
	동화형	통합형	주변화형	고립형	계
가족의 소득	2.77 (767)	2.67 (268)	2.43 (21)	2.20 (10)	2.73 (1066)
부부 관계	3.84 (274)	3.66 (91)	2.40 (5)	3.00 (1)	3.77 (371)
부모-자녀 관계	4.13 (415)	4.14 (142)	3.10 (10)	3.00 (3)	4.11 (570)
자녀교육	3.63 (367)	3.56 (129)	2.67 (9)	2.67 (3)	3.59 (508)
여가활동	3.36 (628)	3.49 (224)	3.11 (19)	3.14 (7)	3.39 (878)
종교활동	3.69 (461)	3.79 (177)	3.40 (10)	2.80 (5)	3.70 (653)
주거환경	3.47 (806)	3.45 (283)	3.33 (21)	2.80 (10)	3.46 (1120)
이웃관계	3.57 (750)	3.60 (263)	3.14 (21)	3.00 (8)	3.56 (1042)
사회참여활동	3.56 (613)	3.62 (229)	3.12 (17)	3.22 (9)	3.56 (868)
생활 전체/전반	3.43 (800)	3.41 (283)	2.90 (21)	3.10 (10)	3.41 (1114)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인식 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생활 전체/전반에 국한해서 살펴보았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I

II

III

IV

V

VI

VII

발견되었다(표 4-21 참조). 남한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3.70점으로 제일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동포로 인식한 경우는 3.43점, 북한출신 남한사람으로 인식한 경우는 3.42점, 기타 3.30점, 북한사람으로 인식한 경우는 3.25점이었다. 이들 유형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남한사람으로 인식하는 유형이 다른 나머지의 유형과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표-4-21_ 자기인식 유형별 남한생활 전체 만족도

(단위: 점)

	평균(표준편차)	F 값
북한사람	3.25(.81) _b	9.787**
남한사람	3.70(.86) _a	
북한출신 남한사람	3.42(.84) _b	
동포	3.43(.78) _b	
기타	3.30(.73) _b	

*** $p<.001$, a, b는 Duncan의 사후검증결과임.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사유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생활 전체/전반에 국한해서 살펴보았는데,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4-22 참조). 대체로 3.5점 수준으로 고른 생활만족도를 보였다.

■ 표-4-22_ 탈북사유별 남한생활 전체 만족도

(단위: 점)

	평균(표준편차)	F 값
정치적 박해를 피해	3.49(.92)	.268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3.46(.85)	
탈북한 가족과 결합을 위해	3.33(.64)	
탈북한 본인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3.54(.69)	
종교의 자유를 찾아	3.46(.78)	
개인적 문제 때문에	3.44(.81)	
기타	3.56(.76)	

다음에는 적응 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한 결과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 4-23> 참조). 발전형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가장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과소성취형, 극복형이었고, 좌절형이 가장 낮은 생활만족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가족 소득에서는 발전형이 3.1점, 과소성취형이 2.78점, 극복형이 2.38점, 좌절형이 2.13점을 기록했다. 생활전체/전반에 걸친 만족도에서도 발전형이 3.66점, 과소성취형과 극복형이 3.18점, 좌절형이 2.93점으로 나타났다. 과소성취형과 극복형은 생활 영역에 따라 만족도 수준이 차이를 보였는데 가족소득과 주거환경 등 객관적인 생활 여건에서는 과소성취형이 만족도가 높지만 여가활동, 종교활동, 이웃관계, 사회참여활동 등에서는 오히려 극복형이 만족도가 높았다. 즉 강점 관점을 갖고 생활조건을 개선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극복형의 사람들이 사회관계에서 더 만족스런 생활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4-23_ 적응 유형별 남한생활 만족도

(단위: %, 점)

생활 영역	적응 유형				
	극복형	발전형	과소성취형	좌절형	계
가족의 소득	2.38 (469)	3.10 (567)	2.78 (32)	2.13 (60)	2.74 (1128)
부부 관계	3.59 (152)	3.97 (217)	3.50 (8)	3.00 (17)	3.77 (394)
부모-자녀 관계	4.03 (265)	4.20 (273)	4.26 (19)	3.94 (33)	4.11 (590)
자녀교육	3.52 (233)	3.69 (247)	3.59 (17)	3.18 (28)	3.58 (525)
여가활동	3.20 (376)	3.58 (484)	3.12 (25)	2.79 (39)	3.38 (924)
종교활동	3.65 (318)	3.76 (323)	3.35 (23)	3.57 (30)	3.69 (694)
주거환경	3.30 (504)	3.63 (585)	3.52 (33)	3.03 (60)	3.46 (1182)
이웃관계	3.45 (466)	3.66 (544)	3.31 (32)	3.33 (57)	3.55 (1099)
사회참여활동	3.48 (381)	3.65 (468)	3.23 (22)	3.19 (32)	3.55 (903)
생활 전체/전반	3.18 (495)	3.66 (588)	3.18 (33)	2.93 (57)	3.41 (1173)

I

II

III

IV

V

VI

VII

VIII



V.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거리감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는가와 이들이 남한사회에 기여하는가 또는 문제가 되는가에 관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측정했다. 북한이탈주민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는가와 관련해서는 앞장에서 기술했듯이 1,019명의 남한주민 응답자 중 43.9%가 북한출신 남한사람, 42.9%가 북한사람, 11.2%가 남한사람, 1.2%가 동포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이런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자신을 남한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는 2010년 한국인의 갈등의식 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문항은 북한이탈주민이 통일에 기여하는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지, 세금 부담을 증가하는지, 사회문제를 증가하는지, 주거지역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범죄율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 6개의 문항 중에서 4개 문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으로 하여금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통일 후 남북한 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6.5%인데 비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7%로서 오히려 반대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2.7%인데 비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1%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가가 국민의 세금부담을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3.4%인데 비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6.2%에 불과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는 실업, 일탈 등의 사회문제를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많았다. 이런 결과는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가해서 남한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이 지저분하다든지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

간다든지 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런 결과는 다수의 남한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나 일탈의 문제로까지 생각해서 기피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표-5-1_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의 기여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

(단위: %, 점)

문항	①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차이	평균 점수
1.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이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통일 이후에 남북한 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3.8	28.9	40.7	24.6	1.9	-6.2	2.92
2. 북한이탈주민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2.8	28.2	46.2	21.4	1.3	-8.3	2.9
3.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기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킨다	1.8	14.4	40.4	36.5	6.9	27.2	3.32
4.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기는 실업, 일탈 등의 사회문제를 증가시킨다	1.8	17.6	47.1	29.5	4.0	14.1	3.16
5.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다	3.1	27.8	51.5	15.4	2.1	-13.4	2.86
6. 북한이탈주민들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3.5	30.1	52.4	12.7	1.4	-19.5	2.78

자료: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2. 북한이탈주민의 이미지

북한이탈주민의 이미지에 관한 21개의 문항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동의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던 것들은 ‘근면하다’와 ‘지적이다’에 그쳤고 나머지 긍정적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특히 ‘개방적이다’, ‘유쾌해 보인다’, ‘자비심이 많다’, ‘안락해

보인다’, ‘친절하다’, ‘진실하다’, ‘합리적이다’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부정적 이미지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들은 ‘돈에 인색하다’, ‘불만족해 보인다’, ‘권위적이다’등이다. 전체적으로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이들이 편안하고 친근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다.

■ 표-5-2_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문항	①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차이	평균 점수
1. 자기에 관심을 많이 둔다	1.2	21.1	52.8	22.4	2.5	2.6	3.04
2. 단정하다	1.7	22.2	53.4	21.0	1.7	-1.2	2.99
3. 친절하다	2.2	29.0	48.7	19.2	0.8	-11.2	2.87
4. 근면하다	1.8	16.4	38.9	40.5	2.4	24.7	3.26
5. 지적이다	1.8	22.9	57.0	17.3	1.0	-6.4	2.93
6. 개방적이다	8.4	49.3	32.6	8.9	0.9	-47.9	2.45
7. 유쾌해 보인다	9.2	47.9	33.4	9.0	0.5	-47.6	2.44
8. 자비심이 많다	6.6	42.1	42.9	8.9	0.5	-39.3	2.56
9. 진실하다	3.7	29.5	51.6	14.1	1.1	-18.0	2.79
10. 안락해 보인다	9.2	45.8	38.3	6.4	0.4	-48.2	2.43
11. 돈에 인색하다	1.7	15.4	42.9	32.9	7.1	22.9	3.28
12. 관료적이다	3.1	27.1	54.4	13.6	1.7	-14.9	2.84
13. 믿을만하지 않다	2.2	22.7	53.0	18.7	3.0	-3.2	2.98
14. 피상적이다	2.6	22.7	55.8	16.6	2.2	-6.5	2.93
15. 불만족해 보인다	2.2	19.7	45.1	29.1	3.4	10.6	3.12
16. 깔끔하다	1.9	23.7	58.3	14.9	1.2	-9.5	2.90
17. 합리적이다	1.8	23.4	62.9	11.2	0.6	-13.4	2.85
18. 권위적이다	3.6	32.5	49.2	13.6	1.1	-21.4	2.76
19. 경쟁적이다	2.0	25.0	47.8	22.8	2.3	-1.9	2.98
20. 적극적이다	1.7	20.8	53.7	21.3	2.5	1.3	3.02
21. 거칠다	1.3	21.6	53.6	18.8	4.8	0.7	3.04

자료: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조사에서는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거리감을 갖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에 살고 있는 여러 소수자집단에 대해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가를 질문했다. 사회적 거리감은 ‘완전히 남이다’(1점), ‘남에 가깝다’(2점), ‘대한민국 국민에 가깝다’(3점), ‘대한민국 국민이다’(4점)로 측정했다. 이런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완전히 남이다’또는 ‘남에 가깝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8.4%, ‘대한민국 국민이다’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가깝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0.6%로 나타나서 북한이탈주민을 남으로 대하기보다 같은 국민으로 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국민으로서 받아드리는 다른 집단으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결혼이민자가 있고 반면 남으로 생각하는 집단으로는 이주노동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있다.

■ 표-5-3_ 남한주민의 다문화적 소수자집단에 대한 친밀감

(단위: %, 점)

소수자집단	① 완전히 남이다	② 남에 가깝다	③ 대한민국 국민에 가깝다	④ 대한민국 국민이다	⑤ 모름 /무응답	차이
북한이탈주민	5.4	23.0	43.7	26.9	1.0	42.2
외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사는 재외동포	10.0	43.7	31.8	14.2	0.4	-7.7
외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재외동포	8.1	46.1	35.6	9.1	1.1	-9.5
이주노동자	13.0	47.8	30.8	7.4	0.9	-22.6
결혼이민자	5.4	23.9	45.5	24.7	0.5	40.9
국제결혼가정 자녀	2.5	16.2	45.0	35.9	0.4	62.2
조선족	5.7	33.8	42.1	17.9	0.5	20.5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이중)국적자	9.1	46.2	32.1	10.9	1.7	-12.3

자료: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조사

I
II
III
IV
V
VI
VII
VIII

그런데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조사에서 사용한 사회적 거리감 문항은 ‘남’과 ‘국민’이라는 구분을 하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보가더스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했다. 주필자는 2008년 12월에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지원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 의식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조사에서 보가더스 척도를 사용해서 장애인, 선진국출신 외국인, 개발도상국출신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했다. 이 조사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200명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총화하여 비례 할당하는 다단계 층화무작위추출법을 통해 표본조사가 이루어졌다(윤인진 외, 201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결과, 친밀감을 허용하는 정도는 ‘그냥 알고 지내는 것’(2.91점)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동호회에 들어오는 것’(2.89점), ‘직장동료로 지내는 것’(2.88점),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2.81점),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2.66점),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1.98점),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1.96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그냥알고 지내거나 직장동료로 지내고 동호회에 들어오거나 가까운 이웃이 되고,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에,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거나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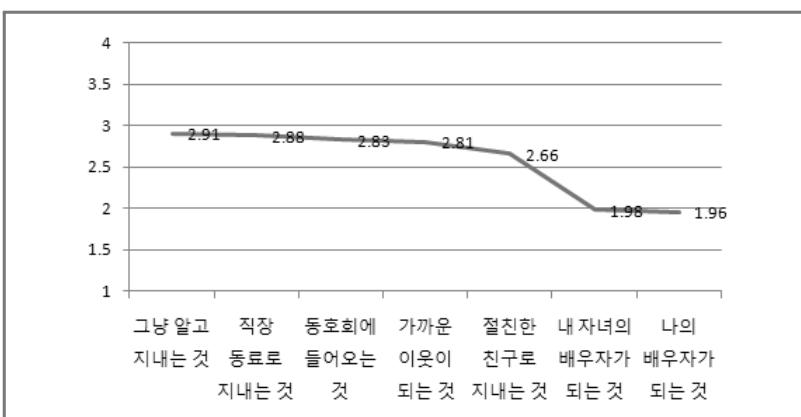
■ 표-5-4_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단위: 명, %)

문항	반대	찬성
그냥 알고 지내는 것	220	18.3
내 직장에서 동료로 지내는 것	234	19.5
내가 속한 동호회에 들어오는 것	273	22.8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300	25.0
나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436	36.3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884	73.7
내 배우자가 되는 것	890	74.2

자료: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 의식조사

주: 설문 문항은 “우리 사회의 여러 소수 집단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귀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북한이탈주민)”였다.



[그림 5-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여러 소수자집단에 대한 남한주민의 사회적 거리감을 비교하기 위해 7개 문항에 대한 응답 접수들의 평균값을 계산했다. 여기서 평균값은 1부터 4까지 변하는 비율척도로 값이 클수록 친밀감이 크고 사회적 거리감은 작도록 리코딩했다. 분석 결과 선진국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한 친밀감이 2.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2.73점), 개발도상국 이주노동자(2.66점), 국제결혼이주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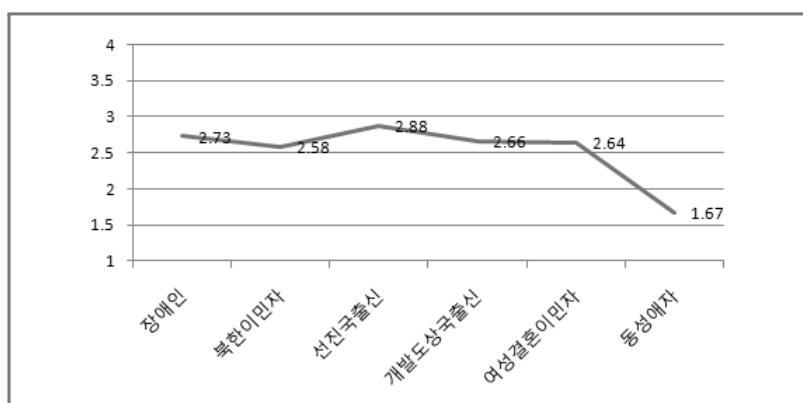
여성(2.64점), 북한이탈주민(2.58점), 동성애자(1.67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한주민은 선진국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해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반면에,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가장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은 이주노동자, 여성 결혼이민자, 장애인에 비교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5-5_ 남한주민의 소수자집단에 사회적 거리감

(단위: 명, %)

	소원함	중간	친밀함	평균 점수
장애인	87명 (7.3%)	754명 (62.8%)	359명 (29.9%)	2.73
북한이탈주민	218명 (18.2%)	661명 (55.1%)	321명 (26.8%)	2.58
선진국출신외국인	61명 (5.1%)	602명 (50.2%)	537명 (44.8%)	2.88
개발도상국출신외국인	136명 (11.3%)	727명 (60.6%)	337명 (28.1%)	2.66
국제결혼이주여성	149명 (12.4%)	731명 (60.9%)	320명 (26.7%)	2.64
동성애자	889명 (74.1%)	259명 (21.6%)	52명 (4.3%)	1.67

자료: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 의식조사



[그림 5-2] 남한주민의 소수자집단에 사회적 거리감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최근의 연구로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실시해 온 통일의식조사가 있다. 이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로서 친근함을 느끼는 가를 질문했다. 조사 결과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로서 관계 맷기를 꺼린다는 응답은 각각 15.2%, 16.1%로 낮게 나타났지만 ‘사업동업자’나 ‘결혼상대자’로서 관계 맷기를 꺼린다는 응답은 각각 38.1%, 4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앞서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 의식조사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종합적으로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과 피상적이고 공식적인 이차집단의 관계는 허용하지만 친밀한 일차집단의 관계는 기피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 표-5-6_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2010년)

(단위: 명, %)

	꺼린다	그저 그렇다	꺼리지 않는다
동네이웃	15.2	35.5	49.3
직장동료	16.1	34.1	49.8
사업동업자	38.1	34.0	27.9
결혼상대자	48.6	28.7	22.7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 2010.

4.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주의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을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남북통일과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윤인진, 2009).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민이고 이들이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무조건 남한문화에 동화하는 것보다 바람직

하다고 본다. 반면 다문화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외국계 이주민과 동일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는 아직 논쟁의 소지가 많고 보다 진지한 숙의가 필요한 의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논쟁에 대해 일반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은 외국계 이주민과 혈통이 다르기 별개의 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북한이탈주민과 외국계 이주민은 모두 이주민이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같이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9.7%는 별개의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했고 38.7%는 같이 보아야 한다고 답해서 두 가지 견해가 거의 비슷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에 대한 부담감과 다른 소외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이 우리나라의 다른 소외계층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1%는 그렇다고 답한 반면 20.8%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서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많았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도 다른 소외계층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많다는 응답도 27.8%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3.6%여서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많았다. 따라서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다른 소외계층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도의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5-7_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
(단위: 명, %)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차이
탈북자와 외국인 이주민은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	2.7	25.5	31.7	35.7	4.0	11.6
탈북자와 외국인 이주민은 모두 이주민이기 때문에 다문화의 시각에서 같이 보아야 한다	2.9	20.4	37.7	35.2	3.5	15.4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이 우리나라의 다른 소외계층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많다	2.2	18.6	46.5	27.4	3.5	10.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이 우리나라의 다른 소외계층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많다	2.5	21.1	46.9	25.8	2.0	4.2

자료: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조사

I

II

III

IV

V

VI

VII



VI. 심층면접 결과

1. 연구방법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상호인식과 같이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이 유용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3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면접대상자는 10대에서 7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로서 남한사회에서의 계층과 적응 수준, 그리고 정체성 유형에서 다양한 면모를 보였다. 면접은 연구자와 면접 대상자 간에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면접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후에 녹취하여 면접 노트를 작성했다.

남한에서의 적응 수준과 유형은 개인의 배경 특성, 제3국에서의 체류 경험, 한국에서의 편견 및 차별 경험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면접조사에서는 개인의 생애과정과 경험에 관한 정보를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해서 수집했다.

본 장에서는 적응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2~3건 선정하여 면접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내고자 한다. 기술 방식에 있어서는 면접대상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이름을 A, B, C의 방식으로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본문 중에 면접대상자들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들의 생각과 심정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하였다.

면접대상자의 특성은 아래 <표 6-1>에 기술되어 있다. 성별 분포는 남자 13명, 여자 17명으로 여자가 많고, 연령 분포는 10대 1명, 20대 6명, 30대 9명, 40대 7명, 50대 3명, 60대 3명, 70대 1명이다. 북한에서의 학력 수준은 중졸 3명, 고졸 및 고교 중퇴 9명, 전문대학 및 대학 중퇴 7명,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이 11명이다. 북한에서의 계층은 하류층 12명, 중류층 12명, 상류층 6명이다. 탈북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 18명, 북한체제 환멸 3명, 가족 따라 탈북 3명, 비리 또는 정치범 혐의로 신변위협 또는 수감 후 탈북 4명, 자녀교육 1명, 브로커 권유 1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

워서 탈북한 사람들 중에는 친부모 또는 시부모가 월남하였거나 국군포로 또는 재일교포여서 출신성분이 안 좋아서 신분상승의 통로가 막힌 사람들도 여러 명 있다. 현재 직업은 무직이 9명으로 가장 많고, 학생 5명,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5명, 보험설계사 2명, 주부 2명, 그 외는 육체근로자, 버스운전사, 사무직, 사회기업가, 파트타임 종사자, 예술단 단장 각각 1명이다. 한국에서의 계층은 하류층 16명, 중류층 4명으로 상당수가 기초생계비를 받고 있거나 저임금 또는 불안정한 소득원에 의존하고 있다. 정체성 유형은 동화형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변화형 6명, 통합형과 고립형이 각각 5명이다. 위와 같은 배경 특성, 탈북동기, 한국에서의 계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에서 하류층에 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탈북해서 한국에서 하류층에 처해 있으면서 남한의 문화와 남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적극 수용하려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 표-6-1_ 면접대상자 특성

번호	성별	연령	북한 학력	북한 계층	탈북 동기	현재 직업	한국 계층	정체성 유형
1	남	33	대졸	하류층	경제적 어려움	대학원생	하류층	통합형
2	여	70	중졸	하류층	경제적 어려움	무직	하류층	동화형
3	여	34	중졸	하류층	경제적 어려움	식당종업원	하류층	동화형
4	여	30	전문대학 중퇴	중류층	유학생 남편 따라 탈북	주부	하류층	고립형
5	여	61	대학 중퇴	상류층		무직	하류층	주변화형
6	남	20	고졸	중류층	경제적 어려움	무직	하류층	동화형
7	여	35	전문학교 졸업	상류층	자녀교육	주부	하류층	통합형
8	남	22	고교 중퇴	중류층	경제적 어려움	무직	중류층	동화형
9	남	59	사관학교 3년	중류층	비리혐의로 신변 위협	무직	하류층	주변화형
10	남	47	대졸	중류층		강사	중류층	주변화형
11	남	45	의학전문학교 3년	중류층	정치범혐의로 신변 위협	무직	하류층	동화형

I

II

III

IV

V

VI

VII

번호	성별	연령	북한 학력	북한 계층	탈북 동기	현재 직업	한국 계층	정체성 유형
12	여	18	중학교 3년	중류층	어머니 권유	고등학생	중류층	동화형
13	남	26	고교 6년	중류층	경제적 어려움	근로자	하류층	동화형
14	여	55	고등전문학교	상류층	비리혐의로 수감 후 탈북	요양보호사	하류층	고립형
15	여	40	고졸	하류층	경제적 어려움	보험설계사	하류층	주변화형
16	여	46	농업전문학교	중류층	브로커의 탈북 권유	요양보호사	하류층	고립형
17	남	66	전문학교 졸	하류층	경제적 어려움	무직	하류층	동화형
18	여	34	고졸	상류층	어머니따라 탈북	미용사	하류층	동화형
19	남	41	고졸	하류층	경제적 어려움	버스운전사	하류층	동화형
20	여	22	고졸	하류층	경제적 어려움	대학생	하류층	동화형
21	남	27	대졸	하류층	경제적 어려움 월남가족 차별	대학생	하류층	고립형
22	남	37	대졸	하류층	경제적 어려움	무직	하류층	동화형
23	여	28	고졸	중류층	비리혐의로 수감 후 탈북	대학생	하류층	동화형
24	남	68	야간대학 중퇴	중류층	경제적 어려움	무직	하류층	통합형
25	남	37	기계전문학교 2년	하류층	경제적 어려움 월남가족 차별	사무직	하류층	통합형
26	여	35	고졸	상류층	북한체제 환멸	아르바이트	하류층	고립형
27	여	43	전문학교 졸업	하류층	경제적 어려움	청소업	하류층	주변화형
28	여	44	전문학교 졸업	상류층	북한체제 환멸	사회적 기업 운영	하류층	통합형
29	여	37	대졸	중류층	북한체제 환멸	보험설계사	중류층	주변화형
30	여	56	전문학교 졸업	하류층	경제적 어려움	예술단 단장	하류층	동화형

2. 정체성 유형별 탈북, 적응, 정체성 분석

1) 동화형

A(남, 41세)는 가족이 함께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하였다. 북한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관학교에 다니며 군대생활을 하다가 강등제대

당했다. 군대에서 초급단체 위원장이었던 그는 연대 내에 문제가 생겨 연대책임으로 제대했기에 소위, 중장, 당원 그 어느 것도 될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노동자였고 북한에서의 계층은 중류층에 속했다고 한다. 제대 후 신의주에서 장사를 하다가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살기가 힘들어 1년 만에 탈북하여 중국 황하에서 삼륜 오토바이를 몰며 5년 정도 체류했다. 배우자는 그가 탈북한 뒤 석 달 뒤에 탈북해 황하에서 반찬 장사를 했고 아들과 그 외 가족도 순차로 중국으로 탈북했다. 그의 아버지는 작년에 사망했고 현재 북한에는 남은 가족이 없다.

그는 중국에 숨어살면서 라디오로 간간이 한국방송을 듣고 탈북자들에 대한 소식, 한국입국 이동경로 등을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나도 갈 수 있겠다’ 싶어 한국행을 시도했다. 일단 중국어선을 타고 나갔다가 공해상에서 한국 배로 갈아타려 했으나 멀미가 너무 심해 중도에 포기했다. 청도에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배가 너무 고파 근처 식당에 들어갔는데 마침 한국식당이었다. 주인이 조선족인 것 같아 그간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밥을 먹여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약간의 돈까지 주며 한국으로 건너가는 경로를 귀띔해 주었다. 배우자가 있는 황하로 돌아간 그는 한국행을 재시도하기로 결심하여 이동경로로 몽골을 택한 후, 나침판과 지도를 사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렇게 그의 한국입국 과정은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단독 설계해서 몽골을 거쳐 왔다. 몽골체류 기간은 20일 정도였고 사막을 넘을 때 심한 고생을 했다. “목이 말라 물을 찾아 나섰다가 중국 경비대에 맞닥뜨려 쫓기면서 도망하다가 야생동물들이 싸고 간 오줌을 먹어 갈증을 해소하기도 하면서 집사람, 아들, 어머니, 이모, 사촌 여동생, 아는 16세 된 총각과 함께 국경을 넘어 3일 만에 몽골경비대에게 잡혔어요. 나침판, 지도, 시간을 계산해서 출발했는데 나침판이 잘못 되어 3일이 걸린 거죠.” 중국군이 아닌 몽골경비대에 잡혀야 만이 살 수 있고 한국으로도 갈 수 있었다. 몽골군들은 세계 지도를 놓고 어느 나라를 찍으라면서 ‘한국이냐, 북한이냐’를 반복해 여러 번 물었다. 말은 안 통했지만 끝까지 일관

성 있게 한국을 가리키자 결국 한국 대사관에서 나왔다. “몽골에서는 당시만 해도 망명초식(초창기) 단계라 주먹구구식으로 망명자들을 방안에 넣고 조사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나중에 한국 대사관에서 와서 또 다시 조사를 한 후 호텔로 옮겨 20일 만에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관광버스에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 대성공사 국정원에 도착했어요.”

한국정착 초기에 컴퓨터 학원을 다녔지만 실기에서 탈락했고 전기를 배우다가도 적성에 안 맞아 포기했다. 그리고 차종을 대형으로 선택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땄고 결국 버스운전을 시작했다. “동적으로 자신만 잘 하면 되니까, 북한 사람으로서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마을버스 운전부터 시작, 현재는 시내버스운전사로 일하고 있어요. 현재 소득은 220만원이지만 내년 3월이면 보너스를 합해 330만원은 되거든요. 그러면 월평균 280만원의 소득이 되는 셈이죠. 이렇게 살다보면 2~3년이면 여기 사람 수준은 가지 않겠나 싶지만 아직은 월세 살고 차도 없고 하니 계층은 저소득층으로 봐야죠. 한국에 막 정착해 잘 살아보겠다고 있는 돈을 거의 주식에 투자해서 날리고 1천만 원 정도의 사채를 쓰게 되었는데 그 빚을 한 방에 갚겠다고 도배도 해보고 브로커까지 하게 됐었죠.”

지금 이 시간도 몽골경로로 탈북자들이 꽤 들어온다. 그는 자신이 직접 몽골경로를 계획하고 실행에 성공한 케이스라 그 루트를 잘 알고 있었고 탈북자들을 돋고 싶기도 하고 돈도 벌어 빚도 갚고 싶은 욕심에 브로커 일을 하게 되었다. 장인, 장모도, 아들도 직접 데려왔다. 오갈 데 없는 탈북자들을 무사히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돋는 일은 보람도 있고 돈도 버는 일이다. 그러나 오래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어 손을 떼려고 마을버스를 몰기 시작했다. 그러나 같이 일했던 브로커들이 다시 일하기를 원해왔다. 결국 ‘한 번만 더하자’는 브로커들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응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하고 일하던 중 중국공안에 잡혀 3년 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됐고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다. 그가 순수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공안이 알고 있기에

한국 영사관에서 손을 안 쓰면 자칫 북송될 수도 있는 처지였다. 같이 일하던 친구 브로커들이 재빨리 영사관에 전화하고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로 여기저기 호소했기에 영사관에서 빨리 손을 쓰게 되어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브로커들이 사람을 모아 일하던 예전의 루트대로 안 하고 빨리 일을 끝내려고 손을 쓰다 보니까, 배를 살 궁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배를 빌리게 됐고 거기에서 서로 가격문제 때문에 오해가 생겨 같이 일하던 사람이 배신해 공안에 신고한 것이에요. 구 형이 3년 이하면 한국으로 보내야 하니 중국에서는 형을 크게 때리는데 미수이기에 집행유예로 3년 판결을 받았었죠. 그러나 액수에 상관없이 벌금만 다 내면 점수에 따라 형을 삭감해 주기도 해서 경찰하고 사업해 2년 2개월 만에 나오게 됐어요. 3년 후면 다시 중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대요.”

중국에서 돌아오니 1천만 원이던 사채가 2천만 원으로 불어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가족이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무서워 숨어 살다보니 만신창이가 되어 현재 개인회생변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가까스로 사채업자들의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고 3년 동안 30만원씩만 갚으면 돼 지금은 한결 마음이 가볍다.

이제 그는 탈북 10년에, 한국생활 햇수로 5년을 살았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 살면서 편견, 차별의 경험은 있다. 새로운 직장에 갈 때마다 남들이 편견을 갖는 느낌이 온다. 그러나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런 게 없어진다. 버스 회사도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들어갔다. 면접 볼 때 이력서에 사실대로 북한사람이라고 쓰니까 고개를 저으며 꺼려하는 눈치였다. 경력이 안 된다는 이유였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 차장의 명함을 뺏다시피 해서 받았다. 차장에게 6개월 동안 일방적으로 안부문자를 계속 보내자 ‘한 번 이력서 내 봐’ 해서 이력서를 냈는데 이제는 사장이 제동을 걸었다. 세 번을 옮겨 다닌 운전경력과 북한 사람이라는 게 결격사유였다. “면접 보는 자리에서 그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일단 써보세요. 여기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호소하며

5분 정도를 버티자 3명의 심사위원과 토론한 끝에 합격시켜 주대요.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북한사람 한 번 써 보자’며 힘써 준 차장의 덕이 크지요.” 고용지원금이 개인 회사에서만 적용되어 이 회사에서는 받지 못하지만 서울 시내에서 5위권에 들어가 있는 운송회사에서 일한다는 현실에 그는 탈북자로서 자부심을 가진다.

정체성에 대해서 그는 평상시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이미 한국 사람이 되어 있다고 자신한다. “북한 얘기 나올 때 ‘나는 한국사람이다’는 생각을 해요. 버스운전을 하면서부터 북한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친밀감이 생겨 한국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일이 없다면 그쪽으로(북한) 치우칠 텐데 바쁘기도 하고 해서 북한사람들을 일부러 안 만나요. 한국사람이 되어간다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생활 패턴도 북한식을 다 잊어 버리고 한국식대로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나도 처음에 왔을 때는 북한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 같아 스스로가 어렵고 접근하기가 힘들었어요. 소외받는 것 같아 일부러 접촉을 안 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북한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말을 잘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크게 말을 안 해요. 북한사람이라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피하고 오토바이 사고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히려 피해를 보고 말아요. 요즘도 운전하는 것을 보고 교포냐고 묻고는 교포가 어떻게 운전하느냐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감이 와요. 그러나 국가에 대한 감사함은 커요. 국가에서 북한사람들을 인정해주는 데 감동을 받았어요. 국민임대 2~3번, 영구임대신청 우선순위를 주는데 감사했어요. 저번 수혜 때문에 월세로 사는 집이 피해를 봐서 동사무소에 신고했더니 백만 원이 나오고, 기대도 안 했는데 그 뒤에 또 30여 만 원이 추가로 나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북한사람들 외에도 못 사는 빈곤층 사람들을 국가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에 ‘이런 나라도 있구나’ 하고 감동받아요. 이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낸다 해도 아무 불만이 없어요.”

A와 같이 국가에 대한 깊은 감사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례로 B(여, 56세)가 있다. 북한에서 예술선전대 단원으로 활동했던 B는 결혼 전에 의학전문학교에서 3년을 공부하고 간호사가 되었는데 결혼 후, 끼를 살려 선전부 생활을 했다. 아버지와 남편, 시아버지는 모두 노동자로 그녀의 가족은 노동자 가족에 속했다. 계층은 중하층이었고 당원이었던 남편과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다.

그녀의 탈북 동기는 배고픔이었다. 1984년 김일성 사망 후 배급도 끊겼고 월급도 몇 달씩 밀려 나왔다. 풀뿌리, 나무껍질을 먹고 옥수수 뿌리 갈아 떡을 만들어 먹었다. 그러다가 ‘힘들어도 참고 풀뿌리를 뽑아먹어도 이겨내라’는 고난의 행군 때 사망한 남편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를 견디다 못해 많은 북한사람들이 탈북을 했고 그로 인해 그녀는 허리끈을 묶고 무대에 서서 ‘아버지 원수님, 김일성 장군님’을 힘을 줘 외쳐야 했다. 이러는 가운데 중국에 가면 밥은 먹을 수 있다, 쌀은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급기야 그녀는 아들과 둘째 딸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기로 마음먹고 물살을 따라 중국으로 갔는데 인신 매매에 걸렸다.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잡힌다는 소리에 ‘내, 말은 듣겠는데 아이들만 책임져 달라’니까 브로커들이 ‘전화번호 줄 테니 가는 데 까지 가서 도망쳐라’ 하며 전화번호를 줘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브로커들에 의해 두 달 동안 3번씩 한족에게 넘겨 산동까지 팔려갔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혼자 살겠다면 옥수수밥이라도 먹으며 참겠지만 헤어진 아이들 생각에 새로운 남편들을 만나도 마음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도망할 궁리만 했어요. 매를 맞고, 확답 받아내고, 창고 같은데 가두고 열쇠 채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믿음을 줘야겠다 싶어 한 달 동안 마음 편하게 손을 붙여 가지고 깨끗이 도배하고 그러니까 부모들까지 마음을 놓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가 대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 틈을 타 도망했어요.”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나와 정처 없이 걷다가 양강도에서 조선족에게 팔려와 아이까지 낳고 사는 북한여자를 만나 사정을 얘기했더니 눈물을 흘리며 도와줘 기차역에서 차 태워주고 연변까지 기

I

II

III

IV

V

VI

VII

차표를 끊어줬다. 전화번호도 못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찾아 거리를 헤매다가 중국 공안대에 잡혀 북송했다.

그녀는 북한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을 높이 본다고 말한다. “조직생활을 하기 전에는 한국사람들이 북한사람들을 깔본다는 선입견이 스스로 있어 나도 모르게 치밀었는데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말한다. “미국에 가서 많이 다녀봤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상당히 발전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보다 못하다고 느꼈어요. 이런 생각은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인간을 귀하게 아는 곳, 인간을 첫째로 놓고 보는 나라가 있다는 데에서 받은 감동이 깊었기 때문에 드는 것이에요. 북한은 국가에 운명(인생)이 달려 있어요. 앉아 놀고먹더라도 배급을 줘요. 의식수준을 낮추는 것이죠. 거기서는 스스로 봉사하거나 남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한국은 자기가 못 먹더라도 이웃, 장애인, 노인을 돋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니 꼭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 월급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은 한국사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나 봐요. 나도 요즈음 한국사람들처럼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보니 보람이 돼요. 인간을 기본으로 아는 나라에서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2) 통합형

북한에서 명문 사범대학을 다녔고 간부급 부모를 두었던 C(남, 34세)는 실력이나 성분에서는 엘리트였지만 계층은 하류층이었다고 한다. 평소 ‘내 것 아닌 것은 가져오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청렴하게 살았던 부모는 간부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값이 없어 일찍 병사했고, 여동생 역시 관도 없이 시신을 맨땅에 묻을 정도로 그의 북한생활은 경제적으로 빈곤했다. 가난 속에서 가족을 모두 잃고 외톨이가 된 그는 친척을 보러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중국 장교를 매수할

비용을 마련하려고 조선족인 친척 소개로 한국회사에 취직해 열심히 일한 결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공장장까지 된다. 그를 아끼던 사장은 회사의 기숙사에서 숙식하던 그의 신분이 탄로 날까 염려돼 중국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기거하게 해줬다. 그는 한국회사에서 일하며 돈을 베는 과정에서 김정일 수령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내 환멸감을 느꼈다. 그러나 당시에는 친척이 살고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중국생활에 만족했었다. 돈을 많이 모아 ‘내 조국(북한)’에 가서 빨리 일어서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탈북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랐기 때문에 탈북해서 적자생존이 난무한 한국 자본주의 사회체제에 적응해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였다. 또한 ‘북한에서 사기를 쳤거나 도둑질한 죄인들이 탈북을 한다는, 한국사회에서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할 자신도 없었다. 실제로 ‘북한에서도 한국은 살기가 어렵고 탈북자들은 모두 범죄자들이라고 선전했기에 그런 말밥(구설수)’에 오르기 싫었다. 그런데 근무하던 한국회사 사장의 권유와 배려로 결국은 한국행을 염두에 둔 탈북을 하게 된다. 사장은 브로커에게 천만 원을 투자하면서까지 그의 탈북을 도와주었다. 위조 여권을 만들어 단독 입국할 때에도 사장이 직접 동행했기에 신변의 위협이나 고통 없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그의 인생에 있어 사장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그는 사장을 지금도 은인으로 생각한다.

한국생활 햇수로 5년차인 그는 현재 서울의 명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그가 대학교에 진학한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혈연과 지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학연이라도 쌓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집 근처의 대학교에 입학했다가 곧바로 명문사립대로 편입했다. 하고 싶은 공부를 머리 싸매고 공부한 결과 첫 학기 중간시험에서 띠 동갑들을 이기고 1등을 했다. 총장님 표창까지 받아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의를 병행해야 했다.

그 와중에 하나원에서 알게 된 6세 연하의 고향 친구와 결혼을 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한국출신의 배우자를 선호했었고 실

제로 결혼을 전제로 1년 정도 교제도 했었지만 남과 북의 넘지 못할 선, 탈북자에 대한 편견에 부딪혀 깨지고 말았다. 그 외, 탈북자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 차별이나 편견을 개인적으로는 느끼지 못했다. “차별과 편견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가치관과 인식 차이에서 그 느낌이 다르다고 봐요.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보고 차별을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편견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거지같은 나라에서 와서 먹고 살만 하냐’는 식의 태도와 ‘너희들이 왜 왔냐? 세금만 나간다’는 말에 상처를 입는다고 한다.

정체성에 있어서 그는 남북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한다. 갈라서 받아들이면 본인만 힘들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관이 다름’으로 인식한다. ‘남북을 떼놓고 생각한 적이 없지만 심정적으로 북한에 끌리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체제가 싫은 것이지 나라 자체가 싫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 겪은 경험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의 가치도 긍정적’으로 본다. 따라서 ‘남북문화를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물론 과거청산 문제와 정체성 고집 문제가 남아있는 북한의 생활, 가치, 문화 등은 시작점부터 다르다고 봐야 하죠. 그러나 교육적인 문제는 혁명과 역사가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교육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북한에서 고등학교만이라도 이수한 사람은 충분히 대학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어요. 한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만 연구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례들도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체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C와 같이 남북을 떼놓고 생각한 적이 없지만 심정적으로 북한에 끌리는 사례로 현재 탈북여성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D(여, 56세)가 있다. 그녀는 북한에서 경제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에 있는 호텔 공급과(운영과)에서 식품, 자재를 공급하는 일을 했다. 직업군인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1명의 자녀가 있었다. 아버지는 평양에서 태어나 미술대학을 다닌

화가였고 가족의 계층은 상류층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중국에 삼촌과 고모가 살고 있다. 아버지를 따라 고모 집에 방문하러 갔다가 기독교 단체 선교사를 통해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에는 선교사가 많았고 성경공부를 하면 평양에서 인민파의 값과 같은 3천 원을 준다고 해서 공부하러 갔는데 하나님 공부는 안 하고 황장엽 선생 회고록, 김현희 씨 책, 마유미 영화 2편을 보여줬다. 그때, 북한의 정체성을 알게 됐다. 굶어죽는 사람, 사회주의 붕괴, 경제붕쇄 등 의문점이 많았고 헬기폭파 등에 대한 한국의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정신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살면서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다. “아니라고는 하지 만 모르는 무언가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저 여자 중국, 베트남에서 왔네’ 하고 깔고 보는 것, 이런 마음일 것이에요. 지금은 반발하지 않지만 처음 병원에 취직해 간호사로 있을 때는 별것 아닌데 시비치는 것으로 들렸어요. ‘북한 아줌마네’, ‘탈북자라고 무시하네.’ 3~4회 정도 그랬 어요. 그래서 두고 보자고 벼르고 있다가 동료 간호사를 병실에 쳐 넣고 혼낸 적이 있어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기만의 자존심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내가 ~였는데, 북한에서는 내가 ~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안 살았었는데’라는 생각이 있으면 적응이 잘 안 되고 정착도 안 돼요. 결론은 편견은 타인은 아무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직장을 그만 두려는 생각까지 했었으나 ‘자존심을 버리자’, 하고 ‘선생님~’하니 스트레스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되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녀는 남한 사람이 탈북자를 무시하는 것에는 탈북자 자신들의 행동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일하는 태도에 있어 열심히 일해 회사에 이득을 남겨줘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지 않고 금방 직장을 그만 두고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는 탈북자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봐요.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 현장 속에서 탈북자 스스로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정체성에 관해서는 자신을 반은 북한사람, 반은 한국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아직도 ‘북한사람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라는 말이 어색해요. 체육 경기할 때 북한이 이겼으면 해요. 불쌍한 사람이 이겨야 김정일에게 징계 안 받고 선물 받는다는 생각에서죠.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살아야 하고 경제의 주체가 되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고 경영방식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사명을 띠고 일할 거예요.”

3) 주변화형

E(남, 47세)는 재일 북송교포이다. 그는 15세까지 일본에 살았다가 1976년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따라 북송했다. 한국의 경상도에 조부의 뿌리는 있었지만 일본의 조총련계에서 일하던 그의 할아버지는 북한을 선택했고 ‘조선학교’를 만들 정도로 조총련에서 지위가 높았다. 북송 후에도 실향민의 반대 계층 때문에 당 간부나 사법 간부는 절대로 될 수 없어 인민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아니었지만 부위원장 직급으로 재일 동포 중에서는 제일 높은 직책까지 올랐다. 그런데 북한의 실정을 직접 목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신타격이 커 북송 1년 만에 사망했다. 그의 아버지는 우익계라 그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한국과 북한의 실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북송을 결심한 그에게 아버지는 ‘가지 말라, 가면 라면도, 카레라이스도 못 먹는다’며 북송을 만류했었다. 그러나 조총련에서 민족교육을 받아 철저하게 세뇌가 된 그는 김일성에 대한 환상에 젖어 아버지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조총련과 거류민단이 나뉘어 있었는데 그는 조총련계였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민족교육에 치중했었다. 한국에서 실향민을 반대하자 북한에서는 적극 수용했고, 남한계의 거류민단 산하에서는 부유층이, 북한계 조총련 산하에서는 빈곤층이 절대 다수였다. 거류민단이 돈 있는 사람들을 포섭할 때 조총련에서는 학교 출판소, 은행, 조선신용조합 등 가난

한 재일교포, 빈곤층을 포섭해 우리말도 배워주었다. 조종련계가 주는 그런 혜택을 받고 북한에 대한 환상을 키운 것이다.

북한에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체육선수단으로 스카우트 되어 현역선수로 2년을 생활했다. 할아버지의 업적 덕에 1980년대에 사범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었고 졸업 후 경공업 단과대학에서 교원으로 활동하면서 작가동맹에 가입해 단편소설도 발표했다. “그런데 북한은 성분이 소외계급이면 걸을 수 있는 출세 길을 걷지 못하고, 당 간부도 되지 못하며, 사법도 할 수 없고, 행정 간부는 가능하지만 책임자는 되지 못해요. 그래서 남들은 3년 만에 할 수 있는 입당인데 어머니가 일본인으로 귀화했기에 소외계급으로 취급되어 당원자격이 될 수 없었죠. 당원이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시시설을 관리하는 노동직장에서 9년 동안 노동생활을 하여 입당자격을 얻은 후 150달러의 뇌물을 주고 입당했어요. 입당하고 나니 당당할 수 있었고 일용화학연구소의 과학기술통보실에서 팀장을 맡아 일할 수도 있었어요. 북한에서 유일하게 컴퓨터가 있고, 외국 기술을 번역하고 통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신분상으로는 소외층이었지만 1980년대까지 계층은 상류층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죠. 당 간부보다 더 잘 나갔던 시절이었어요.”

탈북 동기는 이데올로기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이었다. 재일교포의 왕래가 줄어드니 북한에 귀국한 재일교포들도 살기가 힘들어졌다.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 250달러로 부인이 잣 열매 무역을 해 그 마진으로 외화벌이를 했다. 그도 외화벌이를 하는 전문 업자들과 합작해 사기성과 도박성이 다소 있지만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어 후에 700달러를 투자해 중국에 가는 밀수선을 탔다. 장사가 목적이었지만 배를 타고 일본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그러다가 대륙 봉에 가니 마음이 완전 바뀌었다. 평양의 직권과 권력 투쟁이 싫던 터라 중국에 갔을 때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어졌다. 그래도 처자는 어떻게 하냐며 탈북을 망설이는 그에게 어머니를 비롯한 친척들과 지인들은 돈만 부쳐주라고 설득했고, 같이 밀수선을 탄 사람들은 보위부에 신고하겠다

며 그를 협박했다. 그런 상황이 되자 한 친척이 북한에 갔다가 다시 탈북해서 나오라고 권했다. “장사도 망했고 그래서 북한에 들어왔는데 북한에서는 자격도 없이 중국에 다녀온 것을 빌미로 북송교포 자격을 없앴고 중국에 간 것을 협박했어요. 감옥에 가다가 도망쳤죠. 아무래도 잡힐 것 같아 결정적으로 탈북을 결심했어요.” 중국에 아는 상인이 있어 회령을 통해 탈북 라인을 밟아 2007년 5월에 탈북했다. 그러나 애써 시도한 탈북은 실패했다. 그와 연결된 브로커 조선족 영감은 마약까지 하는 상습범이었다. 아침저녁으로 강가에 나가 탈북한 북한 여성들을 끌고 와 인신매매를 했다. 그가 머물던 당시 남자 2명, 여자 8명 정도가 그 집에 기거했다. 조선족 영감이 다른 일로 잡히면서 탈북자들 사건을 자백해 그는 중국까지의 탈북이 성공했다가 10일 만에 다시 북송됐는데 이 일은 방송에도 떠들썩한 사건이었다. 북송되어 그해 11월까지 감옥에 있었다. 그때 받은 심한 고문으로 한국에 와서 허리 디스크 수술까지 했다. 죄목은 비법월경죄로 적용되어 강제노동 4개월 형을 받았다. 원래 6년 동안 교화소에 있어야 했는데 돈과 인맥으로 만든 진술서를 다 찢고 다시 조작해 형이 감형된 것이다. 이렇게 북송되어 감옥에 있던 그는 돈을 주고 감옥에서 몰래 나온 후, 재차 시도로 탈북에 성공했다. 감옥 동기하고 극비밀리에 탈북했기에 북한에서는 옥사된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탈북으로 중국에서 한 달, 태국에서 두 달 반을 체류, 한국으로의 입국에 성공했다. “중국에서는 조선족을 잘못 만나 협박을 당해 긴장되고 돈을 많이 갈취 당했지만 태국에서는 영어가 좀 되니까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탈북한 사람들을 이끌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자수해 여권을 도둑맞았다고 거짓말시켰죠. 오히려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제 그는 한국생활 핸수로 3년째이다. 현재 그가 하는 일은 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교과부와 연결되어, 북한 대학에서 체육수업을 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었던 점을 살려 초·중·고등학교를 순방하며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

다. 현재 소득은 월 150만 원 정도이고 중류층이라고 생각한다.

그도 편견의 경험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사회에 반감을 가졌다. “여행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니까 뒤에 연락을 주겠다더니, 결국 북한 사람이라 안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곳을 소개한 사람이 내 담당 형사였는데 당시 일어난 원종화 간첩사건 때문에 나를 간첩으로 간주해서 그러는 거라며 민망해 했어요. 그 뒤에 아는 목사가 성결대학에서 일본어 학과 조교라도 시켜보려고 면접을 보라해서 봤죠. 그런데 자격증이 있냐고 하더니 외국 사람은 자국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오면 인정이 되지만 북한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대학을 왜 무시하느냐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죠. 열 받아서 북한사람들은 외국 사람이 아닌데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따졌죠. 북한을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는 현재 사이버 외대 일본학부 졸업반이다. 여행사 가이드를 하거나 동시통역을 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해 등록했다.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는 그를 포함한 탈북자들에게 가시방식과 같다. “천안함 사건 이후로 북한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차갑고 따가웠어요. 이런 경우, 우리 탈북자들은 억울해요. 솔직히 우리가 했나요? 식당을 못 갔어요.”

정체성에 관해서 그는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현재 본명을 그대로 자유롭게 언론에 내놓지도 못해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책을 내고 싶어도 본명이 아닌 필명으로 내야 하는 입장이죠. 통일과 귀결되면 탈북자들은 분단 비극이 빚은 사생아들이 돼요. 그리고 나도 탈북자지만 탈북자들을 비평해요. 탈북자 중에 탈북 강사들이 많은데 자신을 기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의식해 자기 이력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북한에서 있으나마나 한 존재였음에도 ‘북한에서 김정일 측근에 있었다’든지 하여 자기 존재감을 의식적으로 높이려 들죠. 실제는 그 옆에 있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예요. 탈북한 사람들 중 몇 명을 빼고는 북한사회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들이었다고 보면 돼요. 일반 강사료가 보통 24만 원이면 적어도 5천 원의 가치는

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탈북자 전반을 생각할 때 존재감이 빛이 나는 그 양반들이 전반적으로 이기주의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레임 들어올 때마다 나라는 사람은 없다’, ‘존재감은 하위에 두자’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는 탈북자들에게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탈북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주느냐에 따라 돈 주는 교회로 몰리고 설문조사 의뢰가 오면 위대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왜요, 얼마 주는데요’ 하며 ‘얼마 주는 대화’로 강박관념도 없애요. 명칭 논란도 싫어요. ‘새터민’, ‘북한 이탈주민’, ‘탈북자’ 관점이 모두 달라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은 혼터민’이라고 반문해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 존재감을 인식시키려는 모습이 싫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말했다.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언론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가르치는 직업을 가져서인지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강한 편이예요. 체질상으로 아이들과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강원대학 특강에서도 말했지만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미래에 대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의 나가서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요. ‘너희가 햄버거를 먹었으면 우리도 먹었다. 너희가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한 마디만 할게’라고요.”

E와 같이 현재의 존재에 존재감을 못 느끼는 사례로 현재 무직인 F(남, 59세)과 보험설계사인 G(여, 37세)가 있다. F는 북한에서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관학교를 거쳐 군대를 갔지만 농민 노동자 출신인지라 대령이나 중장은 바라볼 수도 없어 장교로 제대를 했다. 군대에서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 일했는데 그곳은 중국과 교역을 했다. 중간 계층으로 살면서 배우자를 만나 2명의 자녀를 두고 그럭저럭 살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중국을 오가며 아연, 납 관련된 일을 했는데 군수공장에서 물건을 빼내 회사로 수출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회사에서는 중국에 있던 그에게 북한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연락을 해왔다. 그 길로 그는 평양에 거주하고 있던 가족들에게는 연락 한 번 못해보고 탈북자가 됐고, 그 후 가족이 산골로 추방당했다는 소식만 듣게 된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던 그는 같이 무역하던 친척의 도움으로 3만 위안과 여권, 비자와 티켓을 구해 싱가포르로 떠난다. 밤 11시에 싱가포르에 도착해 공항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가까스로 한국사람을 발견, 탈북자라는 것을 밝혔다. 그에게 받은 교회 연락처로 전화해 8시에 목사와 연결됐고 택시 운전사에게 ‘I am from south Korea.’라고 말해 목사와 직접 통화하게 하여 교회 앞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북한에서 가지고 온 무역회사 신분증을 내밀고는 망명의 의사를 밝혔다. 한국 대사관에서 경력이 장교라 3~4일 기다리다 승인되면 쉽게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여권에다가 한국 비자를 발급받고 무사히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편견 때문에 겪었던 고충을 이렇게 고백했다. “탈북 초창기에는, 탈북자가 천명 이하일 때, 칠, 팔백 명 정도일 때에는 신분을 밝히고 일하면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중국의 조선족보다 인간됨이 더 나쁘다는 시선으로 차별화 했죠. 취업을 하려 할 때, 일반적으로 북한사람들의 말투가 거치니까 한국사람들이 ‘연락드릴게요’하고는 두려워서 피하곤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전기 자격증 취득 후부터는 ‘강원도 고성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파트 관리를 할 때는 ‘이북 사람인데 1.4후퇴 때 내려왔다’고 했죠.”

정체성에 관련해서 그는 남북한으로 논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비관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 “지금도 가끔 북한에 대한 꿈을 꿔요. 탈북 과정에 있어 느낀 것이 꿈에 나와요.” 그가 본 북한에서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어디를 가든 통행증이 필요하고 필요한 증명서가 15가지 정도는 있어야 통행이 가능하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존심도 상한다. 북한에서 일반인이 외국에 가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더하다. 그곳에서는 비행기도 한 번 못타보고 죽어야 한다. 주민을 통제하고 압박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게 독일의 히틀러보다 더 철저히 통제한다. 그런 사회에 환멸을 느꼈고 한국에서는 그 꿀은 안 보고 살 수 있으니 마음은 편하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을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다. 이런 자유 속에서 산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남북한으로 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 자유를 의미한다.

G(여, 37세)는 수의축산대학 수의학과를 나와 기술직업인 수의사로 일했다. 아버지는 급 높은 지방간부로서 기업의 행정을 관리했고 어머니는 부기원으로 세무회계를 맡아 했다. 비교적 인텔리 계급으로 계층은 중산층에 속했다. 그녀의 탈북 동기는 남달리 북한과 사상이 다른 까닭이다. “능력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인생에 대한 목표도 소용없었어요. 정치적 압박, 몰살, 몰락하는 것을 볼 때 국가를 위해 살려고 했던 정신적인 부분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게다가 김일성 서거하면서부터 ‘김일성 날’이라는 기록영화가 편집돼서 나온 게 계속 김정일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편되는 것을 보며 정치적 모순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고난의 행군’을 3년 연거푸 하니까 주변에서 불평부린 사람은 전멸됐어요. 탈북해서야 들었는데 군부대를 풀어 전멸시켰다고 해요.” 그래도 그녀는 배고픔은 크게 몰랐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는 데 대한 불안으로 갈등하며 일주일 동안 의심하다가 탈북을 결심했다. 중국에 6.25때 피난 간 사촌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중국에 다녀오더니 개방되고 살기 좋은 사회라면 그녀와 어머니의 중국행을 권유했다.

중국에 있을 때, 그녀가 숨어살던 동네에는 1년에 4명꼴의 북한여자들이 4천원에서 7천원에 조선족에게 팔려왔는데 그들은 매일 싸우며 살고 있었다. 그 여자들은 배고파서 월을 뿐이지 사는 것은 자신들도 잘 모른다며 당당했다. 그녀도 중국에서 소개로 조선족과 결혼해 아이를 1명 낳았다. “말이 결혼이지 동거였어요, 하지만 연변의 화룡시 사람처럼 웨딩촬영까지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조선족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머리를 맞아 정신이 혀탈한 상태로 정신이상이 있었고 자기의 앞 처리도 제대로 할 능력이 없어 내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뒤처리를 해줘야 할 형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녀가 중국식당에서

일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녀가 북한사람인줄 모를 정도로 비교적 활동이 활발한 편이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한국으로 가는 경로를 3가지 알았는데 그녀는 한국의 북한인권운동단체에서 연결해준 브로커의 경로를 택했다. 태국에서 머무는 동안 난민기구에서 임시 난민증을 발급해줬고 국제인권지부와 대사관에서 생활비를 지불해줘서 한국뷔페, 로빈슨 백화점, 까르프(홈플러스)를 구경하며 ‘내가 몰랐던 세계가 여기 있었구나’ 라며 감탄했다.

그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북한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똑같은 민족이다. 사람 사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고 사람 사는 것도 자기 능력껏 사는 것이기에 별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자신을 한국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라고 정의한다. “딱히 어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맞춰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지배하는 요구 조건에 맞게 나를 던져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에요. 탈북 정착금을 받고 불법으로 캐나다나 호주, 영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왜 가느냐고 물어보면 한국에서 적응할 수 없고 설 자리도 없어 더 좋은 곳 찾아간다고들 해요. 언어가 안 되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과 차가운 눈빛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언어가 통하는 한국에서 적응 못하는 것은 문화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4) 고립형

H(여, 31세)는 중국 유학생이었던 배우자와 같이 탈북했다. 북한에서 졸업하고 전문학교를 중퇴한 후 도매업을 했다. 친정아버지는 리에서 현재까지 사무장으로 일한다. 비교적 안정된 중류층으로 살았다. 남편은 중국계 북한인인데 유학생인 남편을 따라 중국에 갔던 그녀는 이산가족인 외삼촌의 권유로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한국행을 결행했다. 중국에서 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다. 신혼부부처럼 위장하

여 남편과 단 둘이 왔다. 태국에서는 유엔(UN)에서 난민에게 지급하는 구호금을 받아 3개월 정도 생활하며 성경공부를 했다. 교회가 생소했지만 어려운 처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중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터라 비행기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했다.

하나원을 나와 영등포 직업전문학교에서 6개월간 공부하여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회사에 취직해서 세무분야의 일을 임신 막달까지 했다. 힘들어서인지 아이가 유산되고 현재는 2주째 쉬고 있다. 부부가 같아 별 때는 월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지만 지금은 남편 혼자 개인 용달사업을 해서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계층은 빈민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류층이라고 본다.

북한사람에 대한 한국주민의 인식은 젊은이와 늙은이별로 다르다고 말한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북한사람이 하나를 잘못하면 대형 사고라고 보며 큰 것을 잡아냈다고 생각하고 편견 있는 적대적 시선을 보내요. 북한사람들을 대할 때 두고 지켜보자는 시선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녀는 이를 분명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40대는 네가 잘하나 지켜본다는 생각이고 70대는 무조건 부정적이다. 젊은 사람들은 호의적인 시선도 아니고 그냥 무심한 편이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적응하려면 ‘다방면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탈북자)가 부족한 것이에요. 인간관계에서 한국사람들은 부드러운 데 비해 북한사람들은 직선적이죠. 그런 성격이 이미 몸에 배서 마음을 예술적으로 감추지 못해요. 상대에게 회를 많이 내고 곤잘 ‘너는 나를 무시해’라고 말해요.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해요.”

정체성에 관해서 그녀는 ‘죽을 때까지 북한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태어난 곳이 북한이기 때문에 중국사람도, 한국사람도 아닌 것이다. 본적이 중요하기에 이는 벼릴 수 없는 부분이다. 비록 못살아도 기댈 수 있는 곳은 부모와 주위 사람들이 토대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북한사람임을 가지고 죽을 것이다. 또한 출입국에서 신원확인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이미 사회에서 분리되

어 있다고 본다. 이 문제는 사회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한국에서 나는 오직 홀로서기를 할 뿐이에요. 탈북자들과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얹히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에서도 서로서로 헬뜯고 소문내고 해 모이면 결국 스트레스가 돼요.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오고 전화하는 등 습관적으로 매너를 지키지 않는 탈북자들의 모습들도 지쳐요.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곁 발린 식’으로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 할뿐이에요. 가능하면 탈북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떠나 조용한 동네에 가서 따로 살고 싶어요.”

그녀는 현 시점에서는 오직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니 잘 살고 싶어요. 좋은 차, 좋은 집도 갖고 싶구요. 북한에서는 아가씨들이 장사하는 것이 제한적이었고 단속이 심해 무슨 일이 생기면 식구들이 나서서 막아주곤 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장사하기에 그런 어려움이 없어 편해요.” 북한에 남아있는 그녀의 가족들은 어려운 형편은 아니라고 한다. 그녀와 남편의 신원도 행불(행방불명)로 처리되었기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을 통해 연락해 보았는데 실제로 전재하대요. 한 번은 너무 살아가기 힘들어, 살아남기 힘들어 가족과 같이 살고 싶어서 북한 가족에게 탈북을 권유해 시도하려했으나 위험하다고 가족이 스스로를 거부했어요. 그때 앞으로 한국에서 내가 할 일은 오로지 돈 버는 일뿐이라고 다짐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TV는 전혀 보지 않는다고 한다. 원래 싫어하지만 서로 얹히는 것 보기가 피로하고 그런 내용을 보고 있으면 우울증까지 온다. 정치에도 관심 없고 체제도 모른다. 독재도 싫고 제한 받기도 싫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인들과 동등해지기 위해, 억양도 고치고 무조건 노력해야한다. 목적을 위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그리움도 없앨 것이다. 터가 없어 북한보다 몇 배 어려운 면도 있지 만 그에 따른 성취감은 있을 것이다.

H와 같이 고향이 북한이라는데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진 사례로 현재

학생인 I(남, 27세)가 있다. 현역이었던 그는 4년 복무하고 단독 탈영한 후 탈북했다. 아버지는 당원은 아니었지만 공장의 평범한 사무직 직장인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인데 부업으로 의류, 잡동사니를 파는 장사를 했지만 계층은 하류층이었다. 형제, 자매도 없이 외동아들로 외롭게 자란 그는 대학에서 농악과를 다녔다. 북한은 출신성분이 낮으면 목표성취에도 한계가 있고 성공하는데도 지장이 있어 살아가기 힘든 곳이다. 그는 6.25 때 할아버지가 월남을 했다는 이유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북한에서는 날개를 달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탈북을 결행했다. 중국에서 귀인, 좋은 조선족을 잘 만나 자신의 처지를 잘 설명했더니 중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과 연결해주어 한국에서 나온 안기부 사람들에게 한두 달 조사를 받은 후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4년차인 그는 자신의 신분은 자연스럽게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처음부터 북한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심적인 편견과 차별은 느낀다. “북한 사람들은 사기를 많이 맞고, 쌍욕하고, 시키는 일만 한다는 말을 들을 때는 불쾌지수가 높아져요. 선입견을 안 좋게 가진다는 생각에 말수를 줄여 스스로 문을 닫죠. 일종의 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말수를 줄이고 마음을 닫는 것이 습관화 됐어요.”

정체성에 대해서 그는 자신을 ‘북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북한을 떠났으니까 북한 사람이 아니고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북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사람도 아니다. 한국 국적을 받았지만 아직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해 못하던 한국사회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해서 지금은 북한생활보다 한국생활을 더 많이 안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북한사람이라는 생각은 없어지지 않는다. “심적으로 ‘나는 북한사람’에 더 기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북한사람’이에요. 기타라면 ‘나는 북한사람도 아니고 한국사람도 아니에요. 한민족’이에요. 만일 질문이 하나 더 있다면 ‘한반도에

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정체성 혼란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는 또한 한국사회에 언제쯤 적응할까 생각해 보았다. 사회 적응기간이 8년 정도라면 생활인으로서도, 정체성에 관해서도 적응이 될 것 같다고 본다. 한국생활 2년이 지나자 한국을 알 것 같고 한국에서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3년이 되자 더욱 복잡해지고 혼돈이 오는 느낌이다. 개인적인 사생활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북한 생각이 많이 나고 마음이 복잡했다.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뭐하려고 공부하지?’, ‘가족 문제도 해결 안됐는데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하나?’,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월급 받으면 살기는 하겠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휴학을 했다. 그렇지만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놓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저쪽에서 왔다는 탈북자라는 인식은 평생가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3대까지는 그럴 것이다라고 말한다.

3. 요약 및 정리

앞에서 소개한 정체성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와 총 30명의 면접대상자들과의 면접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패턴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북한에서 하류층에 속했거나 친부모 또는 시부모가 월남가족, 국군포로, 재일교포, 처단자와 같이 출신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북한에서 차별을 겪고 신분상승의 통로가 막혀서 북한체제에 불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거나 식량을 찾아 탈북하게 되고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인신매매 등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다가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북한에 대해 반감과 비판의식을 갖고 상대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남한의 사회문화에 동화하려는 성향

이 강하고 정체성 유형에서도 동화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북한에서 상류층 또는 중류층에 속했던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어도 북한의 좋은 면은 인정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이들은 남한이 북한에 비교해서 앞서 있고 좋은 면이 많더라도 자신들을 북한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의 좋은 면과 남한의 좋은 면은 통합한 정체성을 가지려는 자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체성 유형과 편견/차별의 경험 여부 간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유형에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고립형 또는 주변화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동화형 또는 통합형에 속하는 사람들 보다 편견과 차별의 경험을 더 많이 보고한다. 동화형과 통합형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이탈주민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거나 민감하게 자격지심을 갖기 때문이라는 양비론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셋째, 성별과 정체성 유형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지만 연령과 정체성 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들어서 입국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북한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고 이미 자기인식 내에 북한의 풍습과 기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한사람으로의 전환이 부자연스럽게 느낀다. 따라서 중년층과 노년층에서 고립형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어리거나 젊어서 입국한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고 자신을 북한에 묶어 두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쉽게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남한으로 밀착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이런 사람들이 동화형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주변화형은 북한문화/정체성과 남한문화/정체성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회피형 주변인과 초월형 주변인의 두 개의 상이한 부류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회피형 주변인은 본인은 어느 집단에라도 속하고 싶은데 타인들에 의해서 거부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북한에서 아버지가 조선족 출신 노동자였고 아이를

잃고 남편이 사망하면서 가족이 해체되어 탈북을 한 여성은 중국에서는 사람취급을 못 받았고, 북한으로 돌아 갈수도 없고, 남한에서는 6살 어린이보다 못한 자신을 결국 ‘조선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초월형 주변인은 북한사람, 남한사람, 동포라는 기존의 범주가 자신의 이상, 가치관, 목표를 담아내기에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어느 범주에 속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유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학력이 높거나 북한에서 상류층에 속했거나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타난다.

다섯째, 통합형 또는 동화형에 속한 사람들 중에 북한이탈주민 단체에 참여하거나 리더십 역할을 하는 경우가 주변화형 또는 고립형에 속한 사람들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김형직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입국한 한 청년은 현재 북한이탈주민 청년단체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반면 주변화형이나 고립형에 속한 사람들은 동료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과 교류를 꺼려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의 폭이 매우 제한되고 개인의 삶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I

II

III

IV

V

VI

VII



VII.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역사가 60년을 넘고, 이들의 입국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누적 인원도 2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립정책 유도와 이들이 남한주민과 조화롭게 공동체를 구성하여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새롭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작업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먼저, 이들의 자립정책의 문제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연구와 지원정책은 대부분 이들을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 보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약자가 가진 약점 위주의 관점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이들도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처한 상황이 모두 동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강점 관점’(strength perspective)은 이들의 자립정책에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주관적 대응방식이 객관적 삶의 조건과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적응방식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이 남한주민과 조화롭게 공동체를 구성하여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 도구나 방식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 역사상 선례가 없는 것이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해 왔고 현재 추진하는 지원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확인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통일 선례 국가인 독일 등의 연구 사례를 참고하면 보다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진일보한 유효한 연구와 정책을 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독일에서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진 종단 연구를 토대로 우리 문화와 현실에

적합한 방식으로 새로운 측정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두 가지 큰 연구 문제를 가지고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설문조사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심층면접조사 연구였다. 이 두 가지 연구는 각각의 고유한 연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해 고안되었고, 이들 간에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보다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먼저 설문조사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북한이탈주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1,200명을 표집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에 대해 자기인식,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사회문화적응 수준,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먼저 북한과 남한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문화 및 정체성 수용 수준은 평균 4.1점(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수준이 높음)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것은 기존의 다른 연구들(예, 채정민, 2003)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남한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들이 북한문화와 정체성은 2.6점(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수준이 높음)으로 낮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의 문화와 정체성을 버리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도 채정민(2003) 등을 비롯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 각각의 개념적 중간치인 3.0점을 기준으로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여 베리가 제안한 방식인 4가지 유형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통합형은 25.1%, 동화형은 72.2%, 고립형은 0.9%, 주변화형은 2.8%이었다. 이러한 것은 이들이 남한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적응해나가려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이들에 대해 약점관점을 적용해왔던 연구와 정책들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남한에서 적응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동화형과 통합형에 속한 사람

들이 고립형과 주변화형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만족도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특히, 생활전체/전반에 걸친 만족도에서도 동화형은 3.43점, 통합형은 3.41점이었고, 고립형은 3.1점이고 주변화형은 2.9점이었다. 이러한 것은 정체성 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뚜렷하고, 이들 4가지를 다시 종합해 보면, 동화형과 통합형이 하나의 부류로, 고립형과 주변화형이 또 하나의 부류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북한사람, 남한사람, 북한출신 남한사람, 동포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규정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북한출신 남한사람으로 보는 사람 (50.6%)이 제일 많았고, 남한사람(24.9%), 북한사람(15.3%), 동포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출신 남한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아닌 여전히 자신을 북한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15.3%나 되고, 동포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9.2%나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여전히 북한과의 심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4이라는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연구 결과와는 다소 불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북한과의 연관성을 버린다면 남한에서 문화와 정체성 측면에서 동화형이나 통합형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연관성을 유지한다면 주변화형과 고립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결과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즉 남한사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4.9%이고, 이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문화와 정체성 유형은 동화형에 해당되는데 전체 응답자 중 동화형의 비율은 72.2%이었고, 이와는 달리 북한사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5.3%이고, 이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문화와 정체성 유형은 고립형인데 전체 응답자 중 고립형의 비율은 0.9%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신들에 대한 인식 규정과 문

화와 정체성 유형 선택은 다소 다르게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남한문화와 정체성으로의 동화 압력이 매우 커서 자기 인식과 상관 없이 동화형적인 적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은 여전히 북한사람이거나 북한출신 남한사람 혹은 동포라고 하면서도 전략적이고 수단적으로 남한 문화와 정체성을 획득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이들 간에는 조금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와 연계하여 이루어진 2010 북한이탈주민종합실태조사와 2010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조사에서 남한주민은 전체 응답자 1,019명 중 43.9%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출신 남한사람으로, 42.9%가 북한사람, 11.2%가 남한사람, 1.2%가 동포로 인식하고 있다. 이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인 (사)새조위가 2009년 5~6월에 남한주민 500명과 북한이탈주민 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상호인식 조사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조사 주체에 따라 다른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 결과를 위주로 생각해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는 서로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상호 작용 과정에서 상당한 괴리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의 어려움 기중이나 남한 사회의 통합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인식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사람이나 북한출신 남한사람, 동포 등으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남한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남한생활 전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것은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남한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에 온 이상 이들이 남한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고, 또 그에 걸맞은 실천을 통해 더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이 왜 탈북 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남한에서 어떠한 적응행태를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이 문제는 올바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이 자기 보호 의식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정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탈북 사유는 사유대로 가지고 있고, 제3국 등에서 체류하면선 남한을 선택하게 된 사유는 사유대로 달리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탈북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즉 자신이 주도적으로 남한행을 결심하지 못하고 배우자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등의 영향으로 남한행을 결심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탈북 이유가 단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 파악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탈북한 사람이 조사대상자의 73.3%에 해당되어 절대적으로 많았고, 그 이외에 정치적 박해 요인, 개인적 문제 요인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남한 생활에서 적응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탈북 사유보다는 남한에서의 생활 여건과 본인의 의지 등이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적응 조건이 중요하므로 이를 파악해 보았는데, ‘대체로 힘들고 어렵다’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34.3%였고, ‘보통이다’가 30.8%로서 생활적응 조건이 약간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조건에 대해 이들이 어떠한 대응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개선될 것 같아서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가 55.5%로 제일 높았고, ‘개선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가 36.6%로 그 다음이었다. ‘개선될 것 같지 않아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비율은 0.7%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대체로 개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활적응 조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새로운 분석을 위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조건을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고, 이 두 범주를 삶의 극복 과정과 태도(대응방식)와 연관시켜 보았다. 대응방식은 강점 관점 접근과 약점 관점 접근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2가지 차원을 조합하여 극복형, 좌절형, 발전형, 과소성취형의 네 가지 적응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극복형은 61.2%, 발전형은 30.5%, 좌절형은 7.3%, 과소성취형은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서 볼 수 있었던 ‘북한이탈주민은 약한 존재이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와 같은 인식과는 상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해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 강점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지원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수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이들은 경제적 부적응이 3.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심리적 부적응(북한가족 걱정 포함) 3.0점, 사회부적응(편견 포함) 2.6점, 문화부적응 2.5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경제적 적응 수준이 가장 떨어지고 문화 적응 수준은 가장 높은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탈북한 경우가 73.3%이었다는 사실과도 연결되는 것이며, 남한에서 적응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문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이 이러한 적응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에 대한 인상과 남한주민에 대해 가지는 인상은 현실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일에서 통일 후 동서독 주민 간의 이미지 조사를 위해 사용된 15개 형용사와 우리 실정에 적합한 6개의 형용사를 추가하여 만든 21개 형용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

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이러한 평가가 이들이 적응을 위해 현실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관점에서 파악해 볼 수도 있고, 이들이 남한에서 적응한 결과로서 남한주민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관점 둘 다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점 중 어떤 경우에라도 이들이 남한에서 적응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들이 자신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데, 남한주민에게 사용했던 동일한 형용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평가한 내용에서는 자신들을 ‘중간’ 정도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것을 동일한 척도로 양측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 점수를 가지고 분석해 보았는데도 이들이 자신들보다 남한주민에 대해 0.9점(5점 척도)이나 높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기존의 사회심리학에서 자신에 대한 고양(enhancement)욕구를 가지고 자신들을 더 좋게 보는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 볼 때는 특이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남한에서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형용사 체크리스트에 대해 요인분석을 통해 ‘근면성·합리성’, ‘개방성·자비성’, ‘이기성·신뢰성’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양측 주민에 대한 차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근면성·합리성’과 ‘개방성·자비성’에서 남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기성·신뢰성’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을 자신들보다 더 친절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합리적이고,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라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기적이고,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이들이 남한주민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가감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량적 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와 총 30명의 면접대상자들과의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입국한 사람들은 대체로

북한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남한의 사회문화에 적극적으로 동화하려는 경향을 많이 가진다. 반면에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에 있었던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의 좋은 면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이를 남한의 좋은 면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 둘째, 어떠한 정체성 유형을 지니느냐는 것은 편견/차별의 경험 여부와 연관성이 있다. 어떤 유형이든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립형 또는 주변화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동화형 또는 통합형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편견과 차별의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것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 간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성별과 정체성 유형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지만 연령과 정체성 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주변화형은 북한문화/정체성과 남한문화/정체성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회피형 주변인과 초월형 주변인의 두 개의 상이한 부류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통합형 또는 동화형에 속한 사람들 중에 북한이탈주민 단체에 참여하거나 리더십 역할을 하는 경우가 주변화형 또는 고립형에 속한 사람들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체성 유형별 적응 행태는 정성적 분석에 의한 것으로서 정량적 분석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아도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이들의 적응행태를 좀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자립의지를 강화하거나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은 개인의 역량강화 노력뿐만 아니라 이들이 노동시장과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은 초기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자립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기존의 다른 연구와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화된 대규모 조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고 정책화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측면에서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 미래 통일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라는 2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대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남한주민 대상, 남한의 주요 관련 기관 대상, 기타로 세분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1)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제언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과 역량을 과도하게 높게 인식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대한 해답을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명료화와 적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이 프로그램 구성은 상담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 등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까지 수행된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된다. 이렇게 마련된 프로그램은 하나원뿐만 아니라 하나심리상담센터, 그리고 각 권역별 복지기관 등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가진 인상 또는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남한주민들이 이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한 인상 관리 프로그램이 정착 초기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고, 관련 연구를 추가해서 북한이탈주민의 바람직한 인상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

면 된다. 이 구성을 위해서는 사회학자, 심리학자, 인상 컨설턴트 등이 한 팀으로 진행하면 된다.

셋째, 특히, 본 연구가 북한이탈주민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가 자립의지 부족보다는 적응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사전에 방해받는 조건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적응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어떠한 적응 설계를 해야 되는가를 생활설계 관점에서 프로그램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발달심리학에서 자신의 계획을 세워보는 방식과 보험회사에서 생활설계를 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다.

2) 현재의 남한주민 대상 제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가 남한주민이라는 점에서 남한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이탈주민 이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실효성 있게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통일교육원 등에서만 하는 방식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각 교육주체와 일반 단체,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실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에서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모듈화해서 준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도 남한사회의 여타 소수자들과 마찬가지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라는 점에 기초해서 현재 남한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는 다문화교육과 연계해서 남한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이주민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남한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만을 따로 떼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문화적 소수자집단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연계해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다문

화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론 및 실제 교육 기법 중 북한이탈주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상호이해 프로그램의 개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인식의 장벽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양쪽 집단이 평등한 관계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상위의 공통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빨리 적응하는데 주력하여 취업 교육과 지원에만 몰두한 측면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일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거부감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역복지관이나 하나센터들이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독일의 사회통합 교육에서 배울 점이 있다. 동서독이 분단되었던 시기 서독정부는 동독 이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와 접촉을 증대시켰다. 즉 공통의 목표 하에 동등한 신분에서의 접촉의 증대는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한다는 것이 사회심리학적 원리 중의 하나인데 서독정부가 이러한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 시민대학이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이주민 정착지원 민간단체들은 서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교육프로그램인 시민대학에 이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이들과 현지 주민들 간에 동서독의 체제, 이주민의 역사, 이주동기 및 상황, 현지생활 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한 각종 스포츠 동호회를 통한 서독주민들과의 교류기회를 확대하였고, 서독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마련하였던 정치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이주민들을 위한 세미나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것을 통해 서독사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도 이런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로부터 배우고 공존의 기술을 터득해가는 소위 ‘남북통합교실’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현재 남한의 주요 관련 기관 대상 제언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운 적응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의 힘’을 강조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는 어려운 적응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였던 북한이탈주민 사례의 발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학문적으로도 진행될 수 있고, 관련 NGO 단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남한 언론인과 학자들을 위한 남북한 주민 이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소수자에 대한 인상과 태도 형성에 있어서 매스 미디어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남한의 주요 언론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를 할 때 일반인들의 고정관념과 편견, 사회적 거리감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인들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도하는데 결과적으로 일반인들은 북한이탈주민은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도 자립하지 못하구나’하는 인상을 강화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굳이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는 사건에서는 그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규율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

5) 미래 기타 관련 사항 제언

통일 선례국가인 독일에서는 비록 통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지만 양측 주민들의 이미지 수준에 대한 파악과 관리, 이를 토대로 상담프로그램 구성과 실시 등이 있었다. 이러한 자료는 매우 중요하고 값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독일 통일 사례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이미지, 그리고 대처방식에 대한 정확한 추세 분석을 실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은 향후 준(準)통일 시기나 완전 통일 시기를 대비하는 의미도 크다.

위에서 제시한 제언은 대체로 연구와 교육을 중심으로 한 것인데, 교육은 대상자 맞춤식과 범용적 교육 방식 등 필요에 따라 진행하되, 이러한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므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프로그램 실행 시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취업장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과 유사하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이들에 대해 ‘남한적응의지제고수당’과 같은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시대적 환경과 남한주민의 인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착지원정책의 논리와 지원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을 ‘통일 역군’으로 보는 시각과 ‘이주민’으로 보는 시각 사이에서 진동하였지만 점차 ‘이주민’ 시각에 기반을 둔 지원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과거 보상적이고 시혜적 차원에서 지급하던 정착금과 보로금을 대폭 줄이고 자립 정착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직업훈련장려금, 고용지원금 등을 늘린 것은 이주민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비교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냉담해지고 사회 소외계층과의 평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이 국

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통일 역군’ 시각을 부각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대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이주민으로서의 최소한의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기 쉬울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상시화 되고 국내 거주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이들을 더 이상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갖추기보다 ‘이주민’으로 대우하여 점진적으로 일반 복지서비스 체계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

II

III

IV

V

VI

VII

참고문헌

- 김귀옥. 2000.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의 모색.” 2000년 후기 사회학대회 논문집.
- 김미옥. 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에 대한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의 영향력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8.
- 김승철. 2006. “북한의 가정환경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통일연구』 11(1).
- 김영자. 1999. “탈북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필요성과 역할.”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자료집. 북한인권시민연합.
- 김종남·채정민. 2004.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1).
- 김현경. 2010.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적응에 관한 연구 –남한주민과 결혼한 북한 출신 배우자의 부부 적응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 김혜숙. 2000.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사회문제』 6(2).
_____.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 및 성격』 16(1).
- 박정란. 2009. “여성 새터민의 자녀 돌봄과 일: 실태와 지원방안.” 『한민족문화연구』 27.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10. 『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 신미녀. 2009.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상호 인식.”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적응 10년, 현주소. 제2차 북한이탈주민 자력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 자료집. 국회의원회관, 6월 30일.
- 성태제. 1998. 『교육연구 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신성희. 2010. “회복력 요인 중심의 이혼가정 아동 적응모형.” 『한국간호학회지』 40(1).
- 심진섭. 1995. “남북통일과 남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양계민·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제』 11(1).
- 오인혜. 2007. “탈북자의 고향의식과 그 변화.”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오수성. 1993. “적색공포(red-complex)의 본질과 심리적 작용.” 한국심리학회 1993년 학술심포지움.
- 유은정·박명숙·김찬종. 2010. “생애사적 접근을 통한 탈북 대학생들의 학습자 정체성 유지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회』 10(1).

- 유팔무. 1999. “독일의 통일과 민족통합 10년: 현황, 과제, 교훈.” 한림대학교 민족 통합연구소 1주년 기념 제2회 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 서울: 프레스센터, 11월 5일.
- 윤여상 외. 2005.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 사회학』 33.
- _____. 2009.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집문당.
- 윤인진 외. 2006. 『새터민 여성·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 윤인진·송영호. 2009.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활모델로서의 창업: “시민자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1).
- 윤인진·송영호·김상돈·송주영. 2010.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한국학술정보.
- 이금순 외. 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조사』. 통일연구원.
- 이수정. 1999. “북한인에 대한 남녀의 편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 이장호. 1992. “남북통일의 문화심리적 장애 요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 이재창·김영만. 2005. “탈북자들의 심리적 특성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 탈북자들과 남한주민들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11(3).
- 이트렌드연구소(@-trend Institute). 2000. 『북한사회와 탈북자에 대한 의식조사』.
- 이희영. 2010.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 연구.” 『한국사회학』 44(1).
- 임종현·신현기·백경학·배정한·최필준 역. 1997. 『독일통일백서』. 베르너 바이덴펠트, 칼-루돌프 코르테 편(1996). 한겨레신문사.
- 전우영. 1999. “남북한 고정관념에 대한 탐색: 성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 전우영·조은경. 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기대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 전우택. 1999.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 구조 및 그에 대한 해결 방안.”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 적응 개선방안, 제 32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민족통일연구원.
- 전태국. 1998.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독일통일과 동구변혁』. 서울: 한울 아카데미.
- _____. 2000. “통일독일에서의 내적 통일의 문제.” 『사회과학연구』 38.
- 정경일. 2002.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실태.” 『사회언어학회지』 10(1).
- 정병호. 2004. “탈북 이주민들의 환상과 부적응: 남한사회의 인식혼란과 그 영향을

-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0(1).
- 조현성·박영정·홍기원. 2008. 『2008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정태연·김영만. 2004. “남한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이 탈북자에게 미치는 영향: 남한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0(3).
- 조영아. 2009.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전문적 도움 추구행동.” 『상담 및 심리치료』 21(1).
- 조혜정. 1996. “‘북조선’과 ‘남한’의 동질성과 이질성. 또 하나의 문화통일 소모임.”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1. 『2010 한국의 사회동향』.
- 한국여성개발원. 2006.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보건복지부.
- 현은민. 2007. “경제적 스트레스와 결혼불안정성과의 관계: 부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 Berry, John. 1987. “Finding Identity: Segregation, Integration, Assimilation, or Marginality?” In Leo Driedger (ed.). *Ethnic Canada: Identities and Inequalities*. Toronto: Copp Clark Pitman.
- _____.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 _____. 2002. “Acculturation Strategies: Implications of Research Findings for Policies to Manage Diversity.” Paper presented at the IACCP Symposium. Singapore, July 7~12.
- Brewer, M. 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2).
- Choo, Hae Yeon. 2006. “Gendered Modernity and Ethnicized Citizenship: North Korean Settler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Gender and Society* 20(5).
- Gordon, M.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renczyk, G. 1996. Migrating Selves in Conflict. In G. Breakwell & E. Lyons (Eds.), *Changing European identities*. Oxford, UK: Butterworth Heinemann.
- Kerlinger, F. N. 1973.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2nd ed). NY: Holt.
- Kim, Jih-Un and Dong-Jin Jang. 2007. “Aliens among Brothers? The Status and Percep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Asian*

Perspective 31(2).

- Murphy, H. B. M. 1977. "Migration and the Major Mental Disorders." In M. Kantor (Eds.), *Mobility and Mental Health*. Springfield, IL: Thomas.
- Rocca, S., G. Horenczyk, G., and S. H. Schwartz. 2000. "Acculturation Discrepancies and Well-being: The Moderating Role of Conform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 Smith, P. B. and M. H. Bond. 1998. *Social Psychology across Cultures*. Hemel Hempstead, UK: Prentice-Hall.
- Tajfel, H. 1978. The Achievement of Group Differentiation. In H. Tajfel (Eds.),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New York: Academic Press.
- Turner, J. C., M. A. Hogg, P. J. Oakes, S. D. Reicher, and M. S. Wetherell.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UK: Blackwell.
- Verkuyten, M. and J. Thijs. 1999. "Nederlandse en Turkse jongeren over multiculturalisme: Cultuurbehoud, aanpassing, identificatie en groepsdiscriminatie." [Dutch and Turkish youth about multiculturalism: Cultural maintenance, adaptation, identification and group discrimination]. *Sociologische Gids: Tijdschrift voor Sociologie en Sociaal Onderzoek* 46.

신문기사

- 연합뉴스. “‘北 포격’ 언쟁, 새터민이 70대 폭행해 입건.” 2010.11.24.
- 조현숙. “탈북자도 똑같이 경쟁해야.” 해럴드경제. 2010.1.14.
- 박유리·최승우. “가슴 죄는 탈북자들… “너희 북한, 왜 아래?” 동료 농담에도 움찔.” 국민일보. 2010.4.21.
- 남궁민. “탈북자 밀집 지역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데일리NK. 2010.8.10.
- 여정민. “한국 저임금노동자 비율, OECD 중 1위. 노동자양극화 뚜렷…6명 중 1명은 평균임금 절반 이하 받아.” 해럴드경제. 2008.5.2.

Changing Perceptions and Levels of Socio-cultur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Migrants

Yoon In-Jin

North Korean migrants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South Korean culture and life styles, want to develop close personal relationships with South Koreans, and have strong desire to be accepted as South Korean citizens. When we create four types of identity, such as integration, assimilation, isolation, and marginality, by intersecting the level of maintenance of North Korean culture and identity and the level of acceptance of South Korean culture and identity, the assimilation type is the most prevalent, followed by integration, marginality, and isolation types. Also, when we create four types of adaptation, such as overcoming, developing, frustrating, and underachieving, by intersecting the level of living condition and the style of responding to the condition, the developing type is the most prevalent, followed by the overcoming, frustrating, and underachieving types. Thus, we can conclude that most North Korean migrants have strong will to overcome and improve their current living condition by their own efforts.

Overall North Korean migrants adapt well to Korean society and culture, however, they have a difficulty in finding occupations suitable for their aptitude and backgrounds and suffer from longing for hometown and guilty feeling for families left in North Korea.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for stable settlement would be the provision of entry-level opportunities, such as social labor and jobs in social enterprise, which work as stepping-stones for North Korean migrants to enter the labor market and mainstream society rather than programs to inspire will of self-reliance.

Contrary to the strong will of North Korean migrants to be regarded and accepted as residents of South Korean society, South Koreans tend to view North Korean migrants as people of North Korean origin and hold negative images of them and avoid close personal relationships with them.

We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utual perceptions and social distance feelings between the two groups and there is a great need for developing programs to foster mutual understand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